

19세기 지리교과서에 담긴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의 수용과 변용: 스코틀랜드-미국-일본-한국*

서태열** · 양병일***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the Stadial Theory of Social Development in Civilization through Geography Textbooks in 19th Century: Scotland-The United States-Japan-Korea*

Tae-Yeol Seo** · Byung-il Yang***

요약 : 이 연구는 19세기 지리교과서에 등장하였던 이론인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국가 및 사회의 발전 방향의 모색을 위해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차용되고 적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하여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의 긴 여정을 통해 일어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의 사상적 연계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며, 계몽시대의 중요한 개념들인 계몽, 진보, 문화, 문명의 의미 연결망을 따라 수용되고 변용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은 18세기 계몽시대에 유럽의 스코틀랜드에서 야만, 미개, 그리고 문명으로 가는 3단계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 시작하여, 19세기 초 미국의 지리교과서에서 수용되고 개화의 단계가 추가됨으로써 4단계론 내지 5단계론으로 변용되어 이후 100여 년간 미국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졌으며, 19세기 후반 미국을 방문한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문명개화의 중요한 논거로 미국의 지리교과서와 스코틀랜드 계몽 서적의 내용을 차용하여 야만, 반개, 문명에 이르는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제시하였으며,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했던 유길준(兪吉濬)이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활용하여 미개화, 반개화, 개화로 한국의 개화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주어어 : 스코틀랜드 계몽사상, 애덤 퍼거슨(Adam Ferguson), 단계론, 미국 지리교과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유길준(兪吉濬)

Abstract : This study tried to trace and unveil the process of accepting, transforming, borrowing and utilizing ideas and thoughts in the stadial theory of social development in civilization through geography textbooks in 19th century. It shows long journey from Europe through America to Asia, in which the stadial theory of social development in civilization starts first in Scotland in 18th century with three stages of savagery-barbarous-civilized, and moving toward The United States in the beginning of 19th century and accepted in Geography Textbook during almost 100 years in the transformed 4 stages or 5 stages type with adding the enlightened stage, in the late 19th century moving to Japan by Fukujawa Yukichi who visited New York and found the stadial theory in geography textbooks and Scottish Enlightenment books, finally moving toward Korea by Kil-Chun You who want to suggest the way toward enlightenment and civilization to Korean after studing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Key Words : Scotch enlightenment, Adam Ferguson, Stadial theory, Geography textbooks of the America, Fukujawa Yukichi (福澤諭吉), You Kil-Chun (兪吉濬)

*이 연구는 2020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tyseo@korea.ac.kr)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iyang@bnue.ac.kr)

I. 서론

17, 18세기의 유럽의 계몽주의는 종교와 철학, 정치와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지적 성찰을 통해 19세기 근대를 여는 토대가 되었고, 19세기 유럽은 이를 바탕으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가장 앞서나가는 지역이 되었다. Elias(1969)에 따르면 현재 통용되는 문명이라는 용어는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며, 이후 정신과 사유의 발전과정, 사회와 제도의 발전과정 등 다양한 논의들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문명에 대한 논의에서 계몽주의 사상에 뿌리를 둔 문명사회가 발전단계를 따라서 성장한다는 관점은 사회발전론, 진화론 등 여러 가지 이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문명사회가 연속적인 발전의 단계에 따라 진보한다는 사유는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에서 18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세기 초에는 이러한 문명사회의 발전과정과 단계에 대한 논의는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 나갔다. 19세기 중반에는 문명사회의 연속적 발전의 과정과 단계에 대한 관점은 그 시대에 문명의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갔던 유럽과 미국에서 공유되었고, 세계사와 인류의 역사를 인식하는 하나의 틀이 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서구의 문명 발전을 진화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발전과정이 단계를 따라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관념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다.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 가장 먼저 시작한 스코틀랜드의 계몽사상은 성경적 근본주의와 사회진보라는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국가 발전을 추구하고 있던 미국에서 잉글랜드의 사상들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 갔고, 미국 사회의 발전 방향의 모색에서 중요한 인식틀로서 작용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교육을 통해 국가 및 사회의 발전 과정을 국민에게 전수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지리교과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였다. 19세기 초부터 미국의 지리교과서는 지구의 다양한 현상과 구조를 설명하고, 인간 사회 및 국가의 다양성과 함께 문명 발전 상태의 다양성을 소개하면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유럽과 미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의 격차는 점점 커졌고, 발전에서 뒤처진 아시아에 대한 유럽인의 인식과 아시아인의 유럽에 대한 인식은 상

당한 괴리가 생겨났다. 이 상황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자각이 일어남으로써 아시아에서는 종래의 전통적인 대국인 중국보다 서구 세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구의 문명발전상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에서 인식 전환에 가장 앞서 나간 것은 일본이었는데, 일본의 계몽기에 중요한 사상적 토대를 만든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는 일본 막부의 유럽 및 미국 견문단에 합류하여 서구문명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였고, 앞서 나간 구미제국을 따라가기 위한 문명화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국민을 계몽하고 일본의 문명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논리적 장치를 만들고자 노력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서양 서적들을 참고하여 「서양사정(西洋事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몽서를 출판하였다. 특히 후쿠자와 유키치는 미국 방문 시 구입한 지리교과서와 스코틀랜드 계몽서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포착하였고, 미국의 지리교과서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도입하여, 일본의 문명개화의 방향 및 방법 그리고 실천 단계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 당시 일본의 급격한 발전상을 직접 견문한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후쿠자와 유키치를 통해 일본 유학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미국 유학 중 귀국하여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집필하면서 조선의 문명화와 발전 방향을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에 따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긴 과정을 압축하면, 18세기 유럽의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 19세기 초 미국의 교육에서 수용되어 이후 100여 년 동안 지리교과서에서 다루어졌고, 19세기 후반 미국 견문 시 미국 지리교과서와 스코틀랜드 서적을 통해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알게 된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의 문명개화의 중요한 전거로서, 그리고 일본의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토대로서 이를 활용하여 문명론을 펼쳤고,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하였던 유길준이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활용하여 조선의 개화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이른바 스코틀랜드-미국-일본 한국의 사상연쇄(장인성, 2019)의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문명론의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차용과 원용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텍스트이자 콘텐츠를 담은 매개가 된 지리교과서를 통한 사회발전 및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의 변환 양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 유럽에서 시작하여 19세기에 북아메리카의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긴 여정의 과정과 내용을 고찰하면서, 수용되고 변용되는, 원용되고 차용되는 과정과 사상적 연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라는 용어는 문명발전론, 사회발전론, 사회발전단계론 등 관련된 용어가 다양하게 많지만, 문명화된 사회의 발전과정을 단계를 통해 설명하는 이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II. 계몽시대의 문명론과 스코틀랜드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

“역사는 단지 언제나 변화하는 지리적 지식의 저장소의 축적된 기록이었다. 오늘의 지리는 내일의 역사가 된다.”

(Heffernan, 1994:335)

1. 계몽시대의 인간 진보 및 인간 사회의 발전에 대한 관점

유럽의 중세를 마감하고 근대로 가는 길을 열었던 17, 18세기 계몽시대의 사상은, 중세를 지배한 전제군주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학에 대한 도전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성과 지성을 강조함으로써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려는 시대정신이였다. 계몽주의는 새로운 근대적 가치를 추구하여 종교, 사상과 철학,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과학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가져왔으며, 프랑스,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등 유럽 전체에 걸쳐 퍼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 프랑스 혁명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계몽시대에는 인간과 사회의 발전 및 진보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계몽(enlightenment)와 진보(progress)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고, 그 논의 속에서 문화(culture)와 문명(civilization)과 관련된 개념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계몽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계몽, 진보, 문화, 문명이라는 언어적 전개는 그것과 반대쪽에 있는 원시성, 야만성, 후진성 등의 대조적인 언어들을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대비적으로 설명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Heffernan, 1999:133-134).

계몽시대부터 시작된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으로 기

독교 교리의 변환, 유럽의 해외로의 상업적, 인구적, 군사적 팽창, 그리고 이를 통한 근대국가의 등장은 인류문명과 인간의 진보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다. 한편으로 18세기 대형 백과사전이 등장하는 등 지식 및 정보가 폭증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팽창은 전적으로 유럽중심의 새로운 지구적 지정학(global geopolitics)을 형성시켜(Damton, 1979), 인류 문명과 인간에 대해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다.

계몽시대에는 인류 문명과 인간의 진보에 대한 관점들은 대체로 염세주의적 관점, 순환론적 관점, 진보주의적 관점의 세 가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점차 진보주의적 관점이 주도하게 되었다. 계몽시대의 세 가지 관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문명에 대한 염세주의적 부정적인 관점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에 의해 대표되는데, 사회적 발전과 문명에 의해 자연적 인간의 선함이 변형되었으며, 원래의 선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인류의 진보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진동이나 파동만이 있을 뿐이라는 관점들이 부각되었다.

다음으로 순환론을 들 수 있는데, 창조주에 의해 부여된 한계와 인간이 가진 외적 자연조건에 의해 인간과 그 문명은 궁극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 관점은 유럽의 ‘운명의 수레바퀴’와 같은 보다 오래된 아이디어들과도 연결되고, 생성, 성장, 소멸 그리고 재탄생과 같은 유기체의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르네상스적 언급과 결부된다(Manuel, 1965; Heffernan, 1999:131-132).

순환론은 종종 인간의 삶이 끊임없는 순환성(circularity)에 있다는 메타포속에 있다고 보는 관점인데, 18세기 초 짐바스타 비코(Giambattista Vico)에 의해 대표된다고 볼 수 있다(Heffernan, 1994). 그는 *New Science*(1725)에서 전체 문명의 성장과 불가피한 쇠퇴는 자연의 계절적 순환과 모든 생명체의 발생, 성장, 쇠퇴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반영하는 순환과정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이러한 서클을 따라 순환하는데, 그들이 야만적(barbarous)인 것에서 시작하여 그들은 지배자가 되고 잘 질서화된 국가들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는 그들이 성장하도록 하고, 그들은 세련되어지고, 그 세련됨은 그들

을 약화시키고, 그들은 다시 야만적인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하였다(Heffernan, 1994:337). 그리고 그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서클을 여행한다는 점 즉 모두가 순환적 사이클 속에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근대적 우월성 즉 유럽의 우월성이라는 사고를 부정하였다.

셋째는 진보주의 관점이다. 이 관점은 17세기부터 이어진 유럽전체에 걸친 정치적, 철학적 논쟁의 광범위한 재구성과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세속화의 한 부분이었으며(Pagden, 1988), 1750년대에 안로베르자크 튀르고(Anne Robert Jacques Turgot)와 몇 사람들이 제시하기 시작하여 인간 사회가 고유한 단계를 따라서 전진한다는 직선적, 단계적 진보이론으로 등장하였다. 튀르고의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전적으로 전례가 없었으며(Meek, 1976), 인간 진보의 단계이론의 첫 번째 명시적 진술이 튀르고의 정치지리에 대한 노트에서 나타났다(Heffernan, 1994:337). Heffernan(1994:328)에 따르면, 튀르고가 소르본 대학의 학생시절 1751년에 작성한 짧은 에세이형식의 제안서이자 노트인 *la géographie politeque* (정치지리)에서, 최초의 분명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인간 진보의 단계이론의 공식화들 중의 한 가지를 개념화하고 있었다고 한다. 즉 문명은 일련의 분리된 단계들을 통해 전진하며, 각 단계는 인간과 자연세계간의 상이한 관계들에 의해, 상이한 생존 양식들에 의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조직의 상이한 형태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는 것이다(Heffernan, 1994:328-329). 이처럼 튀르고와 몇 사람들이 1750년대에 개척하기 시작한 인간 발전에 대한 직선적, 단계적, 진보적 관점은 점점 인간의 역사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이고, 근대적 사고의 중심적 인자가 되었다(Becker, 1963; Heffernan, 1994:337).

그런데, 이러한 인간사회 내지 문명의 단계적 발전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지리상의 발견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탐험의 시대와 지리상의 발견이 가져온 지구의 매우 다양한 지역과 그 지역의 거주자들 그리고 생존 및 생활양식은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세계전체가 발전의 모든 상이한 단계들을 보여주는데 일조하였다.

18세기 중반 쏟아져 나오는 다른 대륙에 대한 여행관련 문헌들의 증대된 양과 알려진 세계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나오는 ‘원시인’, ‘반미개인’, 그리고 ‘이교도’ 사회들에 대한 전도 보고서들은, 근대 유럽인들과 ‘고대’ 아메리카 인들 사이에 있는 다양한 문명의 단계들(등급들)에 대한 풍부한 증거를 제공하였다(Heffernan, 1994:336).

따라서 세계의 복합적인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지리는 그 자체가 발전의 단계적 과정의 증거였다. 가장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것에서 가장 문명화되고 세련된 것으로의 인간 발전의 역사적 계열이 관찰되고 있었고, 세계전체에 걸쳐서 모든 ‘발전’의 단계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계몽시대에는 이처럼 인간의 다양성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그것은 피부색, 관습, 문화, 언어에 의해 구분되는, 계몽기의 용어로는 사회발전의 “단계”에서 유럽인들과 다른 인간들과의 조우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드러난 인간의 다양성과 그 의미에 대한 논의는 지리적 지식과 계몽적 사고간의 연결들이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제공하였다. 계몽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인간의 충격”은 다른 인간(human Others)에 대한 충격이며(Withers, 2007:136), 이에 대한 이론적 저술 속에서 인간조건과 연결되는 지리의 문제와 인간의 차이점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있었다.

계몽이론가들은 “유럽너머(beyond Europe)”의 지리적 발견덕분에 비유럽적 사회 형성을 “유럽이전(before Europe)”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몽테스키외, 데이비드 흄(David Hume) 등의 저작에서도 유럽 내부에서 그리고 유럽 너머의 인간과 그들의 문명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게 되었다(Withers, 2007:139).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면서 인종적 차이, 지역적 차이, 환경적 차이 그리고 국가별 차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다.

계몽시대의 인간에 대한 과학은 인간의 기원이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리적 지식에 의존하였고,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의 한 형태로서 계몽시대에 등장한 단계론적 사고는 지리적, 지역적 차이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였다. 이 시대의 탐사 및 여행에서 만들어진 지리적 정보 및 이야기는 그것의 진위를 확인하기가 힘들거나 잘못된 것들이 포함될 소지도 있었지만, 계몽시대의 철학자, 지리학자, 역사학자들이 실험적인 지식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원자료였다.

이에 따라 계몽시대에는 공간이 시간을 가로질러 수많은 현상들을 가시화시켰으며, 시간적 현상들이 공간적으로 표상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 너머(beyond Europe)”라는 것은 또한 “유럽 이전(before Europe)”이었으며, 이러한 관점은 일정하게 지도 속에서도 표현되고 표상되었던 것이다(Withers and Livingstone,

1999:14).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상은 이 시대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윌리엄 로버트슨(William Robertson)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는 지금 인간 본질에 대한 지식을 향한 매우 거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단계와 주기에서 그것을 추적하기 위하여, 더 이상 역사로 갈 필요가 없다. 그 비교적 이른 시기에서부터 역사는 빈약한 선생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인류의 위대한 지도(the Great Map of Mankind)는 한꺼번에 펼쳐졌고, 동시에 우리의 시아아래에서 국가도, 야만주의의 등급도, 세련의 양식도 없는 것이 없다: 유럽과 중국의 상이한 정중한 예의(civility); 타타르와 아라비아의 미개(barbarism); 북미와 뉴질랜드의 야만 상태(the savage state).

(Meek, 1976:13)

이렇게 하여 계몽시대에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밖”에 있는 것이 유럽인들로 하여금 다른 세계를 관찰할 기회를 주어, 유럽을 역사적으로 되돌아보게 하고, 계몽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지적 특징들 중의 하나인 진보 즉 인간 사회의 시간에 따른 발전이라는 아이디어와 연결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연결을 통하여 인류가 “조야한(rude)” 또는 “야만(savage)”의 상태에서부터 하나의 “문명화된(civilized)” 상태로 통과해나간다는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Withers, 2007:149). 이러한 사고는 계몽기의 사상에서 인간 진보, 사회발전의 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가설인 “태초에 모든 세계는 아메리카와 같았다”라고 한 존 로크(John Locke)의 주장에 근거하였고(Heffernan, 1999:132), 이 가설위에서 인류의 진보와 사회발전이 이루어졌다는 다양한 주장들이 펼쳐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18세기 초반부터 로크의 아메리카는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인간발전의 원초적 “단계(stage)”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 지구에 걸쳐서 생존양식이 상이한 인간들이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향의 방향으로 진보(progress)의 사다리를 따라서 전진해나감(Heffernan, 1999),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지며 전지구적 차원에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진보와 문명의 개념은 서로 연결되었고, 그 연결고리는 단계론적 아이디어들이었다. 지구상의 인류

의 최종적 운명에 대한 지속적인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사고의 역사-지리적 성분 즉 지구의 상이한 사람들이 인간 발전의 상이한 단계를 어떻게든지 대변하고 있다는 믿음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고, 심지어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낙관적이지 않은 사람들로로부터도 그러하였다(Heffernan, 1999:135).

계몽주의의 주요 사상들은 유럽의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여갔지만, 다양한 사상가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다 발전된 논의를 만들어 내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와 스코틀랜드는 이러한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프랑스 사상가들은 로크, 흄, 애덤 스미스(Adam Smith), 그리고 애덤 퍼거슨(Adam Ferguson), 존 밀러(John Millar)를 읽었고, 스코틀랜드 사상가들은 볼테르(Voltaire), 몽테스키외, 튀르고를 읽었다.

이러한 폭넓은 사상적 교류를 통해 근대를 열어 가는데 매우 생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타났는데, 프랑스와 스코틀랜드가 가졌던 공통점 중의 하나가 인간사회의 발전과정 그리고 문명발전에 대한 단계론적 사유였다. 그 본질적인 아이디어는 “사회가 상이한 생존양식(modex of subsistence)에 기초한 연속적인 단계들을 따라서 발전을 겪는다”는 것이었다(Meek, 1976:6). 계몽시대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이 독립을 하는 등 정치적 격변도 있었지만, 지구의 다른 부분들과의 교류가 폭증하면서 새로운 인간과 인간집단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은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으며, 인류에 대한 과학적 탐구, 지구 전체에 걸친 다양성, 인간 사회가 시간에 따라 단계를 밟아 발전해나간다는 것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18세기 후반 주로 스코틀랜드에서(프랑스와 매우 중요한 다른 선례들도 있지만) “단계론(stadial theory)”으로 알려진 것의 발전을 보았다. 단계론적 아이디어는 18세기 스코틀랜드 많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인데, 일찍이 1750년대 스미스의 글래스고우(Glasgow) 강연에서 시작하여 애덤 퍼거슨(Adam Ferguson, 1723-1816), 밀러 등의 저술에서 최고조에 달했다(Meek, 1976:99-126).

이 단계론은 사회의 기원, 그리고 그 제도들에 대한 오래된 관심들 위에 만들어졌으며, 유럽인들에게 고전적인 그리스-로마의 그리고 성경적 원천 자료에 기술된 사회를 상기시켰고, “야만(savage)” 또는 “미개(barbaric)” 사람들과 “문명화된(civilized)” 사람들을 구분하는 쟁점을 불러일으켰다. 단계론적 사고는 진보이론(theory of

progress)을 조금 더 정련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이론은 문명사회가 ‘자연적으로’ 또는 ‘표준적으로’ 네 개보다 적거나 많은 연속적인 단계를 통해 시간에 따라 진보해왔으며, 각각의 단계는 상이한 생존양식(mode of subsistence)에 상응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생존양식에는 사상, 소유, 법, 제도, 정부형태 등 그에 상응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주장되었다(Schorr, 2018:509).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진보주의자들은 모든 사물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어떤 태초의 영광의 상태로부터의 추락보다도 문명의 상승을 표상하는 발전의 ‘사다리’를 따라 상승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Heffernan, 1994:329). 프랑스의 사상가들도 또한 인간이성과 사회에서 무한한 개선 심지어는 완벽성을 가정하는 인간 진보(human progress)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Chen, 2008:182).

2.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과 문명사회 발전단계론

스코틀랜드는 1707년 잉글랜드에 통합될 당시 잉글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지만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자들이 다양한 지적 추구와 사회적 활동을 이끌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 스미스를 비롯하여 많은 계몽주의 지식인들이 등장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스코틀랜드 칼뱅주의(Calvinism)는 매우 강력한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진보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였고, 두드러진 지적 성취를 이루었다.

이영석(2000; 2014)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인들을 결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순수한 칼뱅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이었는데, 이는 잉글랜드 교회와는 다르게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영적 갱신과 함께 새로운 지식과 도덕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통으로 스코틀랜드는 영국이 18, 19세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등 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취를 보이면서 지적, 문화적 활력을 제공했고,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인문과 사회 전 방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는데, 계몽주의의 인간 사회의 발전단계론에 대한 논의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발전 비전은 새로운 신생국가이자 프로테스

탄티즘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에도 영향을 주었다.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사상가들은 과거와 현재의 인간사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계몽과 진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논쟁을 하는 지적풍토를 만들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단계론적 틀을 제시하였고, 애덤 퍼거슨은 그의 저서 *An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1767)에서 인간 역사의 단계들을 “야만(savage)”, “미개(barbarian)”, “polished(세련)” 단계들로 제시하였으며, 윌리엄 로버트슨은 *History of America* (1777)에서 아메리카의 “원주민(primitives)”들에 대한 이론화에서 “야만적 상태”에 대한 많은 묘사들을 제시하였다(Withers, 2007:153).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에서 단계론은 사회들이 상이한 생존양식(modes of subsistence)에 기초하여 연속적인 단계를 통해 발전을 겪는다는 아이디어 속에서 구현되었다. 계몽주의 단계론(stadialism)은 인간 사회가 일반적으로 고정된 단계 패턴을 따라 보편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단계론에서 중요한 것은 단계의 숫자나 순서, 정치조직의 양식, 삶의 주기의 국면들이 아니라 상이한 생존양식이었다(Meek, 1976:6). 따라서 애덤 스미스의 경제 발전단계론에서도 ‘수렵→가축→농업→상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 부양과 안락함을 획득하기 위한 자연자원들을 활용하는 변화하는 양식인 것이다(Wolloch, 2011:253). 이 시대의 학자인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은 ‘야만적, 군사적 그리고 유목적인(savage, militaristic, and nomadic)’ 존재에서 ‘교양 있고, 평화적, 그리고 사회적(cultured, peaceful, and social)’ 삶으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2단계 이론을 제시하여 상당히 저명하였는데,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가들은 2단계를 넘어 보다 복합적인 단계론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인간 사회의 발전 및 문명의 발전단계를 서술하여 19세기까지 영향력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상가는 애덤 퍼거슨과 애덤 스미스였는데, 스미스가 경제적이었다면 퍼거슨은 사회적, 정치적이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을 이끌었던 에든버러(Edinburgh) 서클의 중심이었다. 인간사회 발전단계론에서 경제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애덤 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가들은 진보의 물질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었는데 비해, 퍼거슨은 진보에서 생산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둔 물질적인 경제 부분에만 주목하지 않고, 인간내면의

덕성들과 결합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Chen, 2008:181). 퍼거슨은 인간의 역사는 한 가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의 변환(transformation of Production)이라고 보는 패턴화된 사회적 진보의 유물론적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적 부분들과 결합되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인류문명의 보편적 흐름을 강조했다. 점에서 특별하였다.

퍼거슨은 야만 사회(the savage 또는 rude), 미개 사회(the barbarian 또는 barbarous) 그리고 문명 또는 세련된 사회(refined, civilized 또는 polished Society)의 단계로 발전한다고 비경제적인 용어로 제시하였고, 이 단계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체로 수렵, 유목 그리고 시민적(civil or polished) 사회 또는 원시, 봉건, 근대에 상응하였다. 그는 초기 단계들은 보다 인간지향적인 용어로 보일 수 있는 'savage', 'barbarian' 그리고 'rude'라는 용어로 특징화하였으며, 용기, 불굴의 정신, 용감함과 같은 덕성들이 야만인(savage), 미개인(barbarian)들의 추정되는 특성들과 어떻게 연계되는 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Chen, 2008:182-183). 그러나 퍼거슨은 스미스의 경제적 범주를 이해했고 경제적인 것과 상응하는 사회의 상태를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가장 거친(rudest) 상태의 인간인 야만인(savage), 보통 목축을 하거나 농업적이었을 것으로 보는 미개인(barbarian), 세련된(polished) 국가들은 보통 상업적으로 발전해나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경제적 결정론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인자들의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Craig, 2009:18).

퍼거슨뿐만 아니라 흄, 스미스, 로버트슨, 밀러 등을 포함하는 많은 스코틀랜드 사상가들은 인간의 양식과 제도는 사회적 패턴에 따른 변화로 점차적으로 세련되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비해, 퍼거슨은 자연적으로 존중받을 타고난 원초적 덕성이 손상시키지 않는 순수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보다 관심이 있었다(Chen, 2008:183). 퍼거슨(Ferguson)은 문명사회의 발전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인간 개인이 유아에서 성인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도 그 자체가 야만(rudeness)에서 문명(civilization)으로 진보한다..야만(savage)의 상태에서는, 시민(citizen)의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쪽에서건 영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정에 있는 존재(travelling being)가 지나가도록 정해져 있

는, 통과해야 할 단계들 일뿐이다.

(Ferguson, 1966:1-8)

구분은 특성의 물질적 차이를 만들어 내기 마련이며, 그들의 가장 조야한(rudest) 상태에서의 인류의 역사를 고려하면 두 개의 분리된 머리 제목을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재산에 아직 익숙하지 않는 야만(savage) 상태와 법에 의해 보장되지는 않지만 돌봄과 욕망이 그들에게는 주된 목적이 되는 미개(barbarian)의 상태이다.

(Ferguson, 1966:82)

이러한 퍼거슨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과 관점은 다른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가들의 버전들과 더불어 후속세대에도 이어졌는데, 1860년대 버튼(Burton)이 교육용으로 쓴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for Private Instruction)」(1852)에서도 Ferguson을 계승한 모습이 잘 나타난다. 원래 이 서적은 Chambers 형제들이 편집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인 Craig(1984)가 실제 저자가 버튼임을 밝혔다.

19세기 버튼은 퍼거슨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반영하여 유사하게 문명발전 3단계론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은 미국에서는 문명 및 사회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명발전단계론을 교과서에 실었는데, 다음 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19세기 초부터 미국의 지리교과서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일본의 문명론과 일본개척의 선구자로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19세기 후반인 1867년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뉴욕의 애플턴 서점에서 버튼의 이 서적을 구입한 후 번역하여 1868년에 「서양사정(외편)」으로 출판하였다. 당시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양사정 I」에 이어 「서양사정 II」를 집필하던 중이었는데, 이 서적의 출판을 미루고 버튼의 「정치경제학」에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 지를 다른 1부만 번역하여 긴급하게 출판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내용이었다.

버튼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에 실린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다음과 같다.

문명(civilization)

국가가 야만(barbarous)에서 문명(civilized) 상태로 진

보해 나간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준다. 야만의 상태의 주된 특성은 그곳에서는 인류에 대한 낮은 열망이 주를 이루고 대부분이거나 규칙성(규율)이 있는 것이 적다. …… 그 상태에서는 여성은 동료라기보다 거의 노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자의 약자에 대한 폭력이 가해지고 빼앗는다. …… 문명의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역전된다. 사악한 열정이 억제되고 도덕적인 감정이 발전한다; 여성은 그들의 제 자리를 갖게 되고; 약자는 보호받으며; 보편적 혜택을 위한 제도들이 변장한다. …… 오직 문명을 이룬 후에 만인을 위한 평등한 법을 유지할 수 있고, 자유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야만상태**(barbarous state)가 자연적이고 문명의 상태가 인위적이라고 주장되어져 왔다; 그러나 여기서 인위적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된 것이다. 문명상태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자질은 야만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명의 형태로 가는 것, 제도로 가는 것, 온화한 역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본질적 기질의 결과이다.

반문명(half civilized)의 중국인들은 작은 공간에 맞도록 여아들의 발에 작은 쇠로 된 신을 신게 한다. 진정한 문명은 그와 같은 자연의 과정에 대한 커다란 방해물 제공하지 않는다.

(Burton, 1852:16-17)

III. 19세기 미국에서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의 도입, 수용과 변용

1. 미국의 계몽사상과 스코틀랜드의 계몽사상

미국의 계몽사상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스코틀랜드 계몽은 “아마도 미국 계몽의 가장 강력한 하나의 전통”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Schneider, 1947; Howe, 1989:572),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세계 어느 곳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Edinburgh)의 학술과 경쟁할 수 없다는 표현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기에 칼뱅주의를 받아들여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잉글랜드와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으로 미국과 연계되었다. 실제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사상들과 직접 연결되었는데, 그들은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에서 철학적 근거를 찾아, 자유와 평등 사상을 실현하고 개인의 소유

와 자본에 근거한 상업에서의 경제적 진보를 장려하는 취지를 담은 독립선언문과 연방헌법을 만들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19세기 미국의 사상과 종교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즉 그들의 사상을 철학적인 면에서 보면,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관념론이나 흄(Hume)의 회의론과 다르게, 인간의 앎은 관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의 원리에 의해 획득된다는 “상식 학파(Scottish School of Common Sense)” 철학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윤리론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철학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으로도 불리기도 했다(Howe, 1989:576). 그들은 대륙적이며 데카르트적인 합리주의보다 베이컨적인 경험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추론과 실험을 통해서 인간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이 발견될 것이라고 믿고,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강조하였다.

스코틀랜드와의 깊은 관련성으로, 미국에서 사회, 경제, 정치에 이르는 입법의 과정에서 미국의 사회사상가들은 자유롭게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수행하였다. Howe(1989:581)에 따르면 미국 헌법의 입안자들이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과 관련이 많았는데, 그들은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가들처럼 사회적으로 보수적이었으나(상대적인 것으로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보수적이고, 당시로서는 진보적, 혁신적), 경제적으로 진보적이었다. 즉 부의 재분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발전을 원한다는 측면에서 진보적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1776년 만들어진 신생국가인 미국의 독립 초기부터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가들의 서적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읽혔다. 그것은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이 철학적으로 다양했고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진보적이었으며, 미국의 사회사상가들은 개혁과 변화를 원한다는 점에서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와 더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Howe, 1989:581).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스코틀랜드처럼 정치적 영역의 독립을 더욱 확장하면서도, 연방을 하나로 묶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연방을 통한 얻어지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익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2. 19세기 미국에서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의 도입과 수용

미국은 독립하였으나 많은 지적 원천은 여전히 미국

밖에서 들어온 서적들이었으며, 지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학문들과 관련된 서적들의 상황도 유사했다. 대부분의 아메리카 지리의 저자들은 유럽인들이었고, 실제로 가지 않고 2차적 자료나 다소 상상적인 경험을 기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장소나 지역들을 기술하였다.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미국에서 미국인에 의해 실질적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미국의 지리 서적은 제디디아 모스(Jedidiah Morse)가 쓴 *The American Geography or present situ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789)였다. 이 책은 많은 주목을 받아 높은 인기를 끌었고 재판을 거듭했다. 모스는 지리서의 구도에서도 종래에 유럽을 중심으로 다른 세계들을 먼저 기술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국과 아메리카를 먼저 다루었다. 이는 당시 영국의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학교 지리서의 저자인 구스리(Guthrie)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 아메리카에 대한 충성심, 지리를 그 지역의 떠오르는 국가적 아이덴티티(정체성)의 형성에 일조했다고 평가되었다(Withers, 2006:717).

그렇지만 19세기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지식의 영국적인 원천과 성경적 근본주의가 영향력이 커서, 지리교과서의 저자들은 세계에는 다양한 국가와 사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창조설, 대홍수 등 성경의 거대한 사건들을 반드시 언급하여 성경적 틀과 진보라는 아이디어를 결합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모스(Morse)와 호라티오 스타포드(Horatio G. Stafford) 등 당시의 주요한 지리교과서의 저자들은 세계를 성경적 시간틀 속으로 맞추어 사회의 발전도 설명하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야만적 상태와 대비하여 그들은 문명의 상태로 나아가간다고 기술하여 야만과 문명을 구분지었다. 모스는 *Elements of Geography*(1801)에서 문명과 야만을 구분지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4장 야만에서 문명화 상태로의 진보(Progress from the savage to civilized state)

야만인(Savages). 야만적 상태의 인간은 언어, 역사도 없다. 매우 불완전한 전통만 가진다. 즉 책이 없고, 읽기, 쓰기, 산수, 농업, 기계학, 항해, 정규적 상업과 같은 기예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들 자신의 기원, 세계에 대한 아이디어도, 일반적으로 그기에 거주하는 존재들도, 그들 모두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도 매우 무지하며, 진실을 거의 모른다. 그들은 숲속

에서 울부짖으며 간단한 음식으로 유지하며 움막에 산다.

문명인(Civilized Men). 야만의 상태와 정확하게 정반대의 상태에 있다. 그들은 문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과 과학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든 책을 적어내고 배포하는 수단에 대한 지식 그리고 글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서로 간의 교류를 유지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류는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인도할 때 필요한 모든 등불과 진리를 담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Morse, 1801:115)

그런데, 1820년대가 되면 사회의 단계가 처음으로 지리교과서에 명시적으로 등장하고,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 4단계로 나타나는데 이어서 5단계로 확장되어 제시되었고, 이후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계몽시대 지리학서가 번역되어 프랑스의 사회발전단계론도 등장하였다.

Craig(2009)에 따르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의 발전 단계에 대한 목록을 제시한 것은 저명한 사전편집자였던 조지프 에머슨 우스터(Joseph Emerson Worcester)이다. 그가 1819년에 쓴 *Elements of Geography, Ancient and Modern*에서 “Man”이라는 제목하에 인류는 the savage, the barbarous, the half-civilized, the civilized라는 4단계의 사회의 상태(state of society)에 있다고 제시하였는데(Worcester, 1819:13),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도입된 문명사회발전단계론은 미국에서 수용되면서 변용이 일어났다. 즉 종래의 스코틀랜드의 문명발전론의 최종단계가 문명(civilized)단계이었는데, 1821년 우드브리지(Woodbridge)에 의해 사회 상태의 가장 높은 5단계(enlightened stage)로 계몽 내지 개화의 단계(enlightened stage)의 단계가 추가된 것으로(표 1), 이는 1900년대까지 출판된 지리교과서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우드브리지는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의 지식을 받아들여 기후와 작물을 결합시킨 세계 기후도처럼 다양한 단계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의 상태의 다양성 그리고 세계의 문화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지도화하고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지리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Calhoun, 1984:15).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큰 혁신이었는데, 문명과 같이 비가시적인 개념과 그 분류를 시각적으로 가시화시켰던 것이다. 그는 훔볼트처럼 당대의 과

표 1. 19세기 초 미국 지리교과서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

<i>Element of Geography, Ancient and modern</i> Worcester (1819)	<i>Rudiments of Geography</i> Woodbridge (1821)	<i>Universal Geography, Ancient and Modern</i> Woodbridge (1824)	<i>Universal Geography</i> 영역본 Malte-Brun (1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hematical geo, Physical geography, America 순서 • Man(인류) - 인간은 피부색, 형태, 특성 그리고 개선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함을 보인다. 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온대에서 나타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lightened stage 추가로 5단계 • Civilization(문명) - 인간은 다섯 가지의 다른 사회의 상태(the state of society)에 있다. 즉 야만(savage), 미개, 반문명(half-civilized), 문명(civilized), 그리고 개화(enlightened)가 그것이다. 사회의 상태는 인간의 지식, 그리고 건축, 직물, 제철 등과 같은 기술과 그리고 그들의 양식 및 관행에 달려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단계론(Woodbridge, 1831, 2nd edition, 174-175) • Civilization - 인류는 다음의 상이한 사회의 상태들로 나타난다: 야만(savage), 미개, 반문명(half-civilized), 문명(civilized), 그리고 개화(enlightened) - 개별 국가의 문명의 정도는 몇 개의 음영으로 세계지도에 잘 보여지며 설명될 것이고, 학생들 스스로 그 곳에서 보여주는 압축된 관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세계의 일반적 상태에 익숙하도록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관심을 끌어온 이 모든 측면과 관계들의 집적된 효과 즉 일반적 결과는 한 국가의 성격을 구성한다. 국가는 세 가지의 등급(class)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Malte-Brun, 1824: 5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만상태(the savage state)에서는 인간은 수렵, 어로 그리고 자구의 자생적 생산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생계를 꾸린다. 뉴홀랜드와 그 인근 섬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거주민, 아메리카 원주민(aborigin)은 야만으로 간주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야만 상태는 수렵, 어로, 그리고 강탈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며, 옷을 입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야외나 미약한 움막에 산다. (아메리카의 북서부, 시베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그림을 보라) 그들은 농경이나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토지의 구분, 법률체계가 없다. 그들은 마을이나 타운에 모이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만상태(the savage state)는 그들의 생계를 주로 수렵, 어로 그리고 채집의 의하며, 옷은 거의 입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야외에 또는 동굴, 작은 굴 또는 미약한 움막에서 산다. 그들은 농경에 대한 지식, 금속을 이용한 작업이나 기계가 거의 없다. 토지의 구분도 없으며, 법률체계도 없다. - Savage는 사유재산을 주장하지 않으나 의복이나 무기, 가죽은 있다. 사냥과 농경을 하였을 때 그 산물은 부족의 공동재산이 되며, 균등하게 그들 사이에 나누어진다. 북미와 남미의 대부분, 아프리카의 내륙, 아시아의 북부 해안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내륙은 야만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고정된 주저에 익숙하지 않으며, 숲속의 야수처럼 그들이 필요나 성향이 가는 대로 여기저기 방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만(Savages)은 글을 쓰는 것을 모르거나 글을 쓰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기호체계에 의해 그들의 사고를 고정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는 사고들은 그들의 감각을 두드리는 대상에만 결부되어 있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방식으로 그들의 사람들을 칭송하면서 기뻐한다거나, 열성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하며, 그리고 이점에서 우리를 무한히 능가한다. 그들의 산업은 작은 원예, 어업 그리고 사냥에 제한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개(the barbarous)에서는 주로 유목에서 그리고 약간의 미약한 농업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한다. 이 상태는 중세기 동안 모든 유럽이 그러하였다. 지금은 야만이 아닌 아프리카의 지역, 아라비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에서의 상태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미개(barbarous) 상태는 농경이나 소와 양의 목축으로 자급자족하며 기계기술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Circassia, 타르타르, 아라비아, 남아프리카의 그림을 보라). 미개국가들은 마을에 모이며, 약간의 규칙적인 형태의 정부와 종교를 가진다. 그러나 문(문자)나 책이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개(Barbarous) 국가는 국가들이 농경 또는 소와 양의 목축에 의해 자급자족하며, 금속 이용과 기계기술에 대한 부분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 그들은 약간의 정규적 형태의 정부와 종교를 가지고 있으나, 문자화된 언어나 책이 없다. - 미개 국가에는 두 개의 층이 있다. 시베리아, 타르타르,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막의 대부분은 방랑하는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천막에서 산다. 주로 그들의 낙타, 말, 소, 그리고 양들에서 우유와 고기에 의존하여 자급하며, 초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기저기로 이동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개(barbarians) 또는 반개(half civilized)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성문법에 의해, 의식적 절차로 표현된 종교에 의해, 또는 보다 정규적인 군사체계에 의해 야만 상태에서 명백히 벗어난 모든 국가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직 일관성이 없는 관찰들로서만 있다. 그들의 예술은 정해진 대로 실행되는 것이며, 그들의 정책은 위험의 순간에 그들의 경계를 지키는 것에 한정되고, 계획 없이 행해지는 공격적인 작동에 한정된다.

표 1. 19세기 초 미국 지리교과서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계속)

<i>Element of Geography, Ancient and modern</i> Worcester (1819)	<i>Rudiments of Geography</i> Woodbridge (1821)	<i>Universal Geography, Ancient and Modern</i> Woodbridge (1824)	<i>Universal Geography</i> 영역본 Malte-Brun (1824)
		<p>- 아프리카의 비옥한 지역에 있는 미개국들과 아시아와 폴리네시아의 내륙국들은 거의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지구의 자생적 산물에서 풍부한 먹거리를 공급을 받는다.</p>	
<p>• 반개(the half-civilized) 상태에서는 농업과 공업이 높은 정도의 향상이 이루어지나, 외국과의 상업이 매우 제한된다. 이러한 상태는 터키, 페르시아, 힌두스탄 그리고 중국이 있다.</p>	<p>• 셋째, 반개(half-civilized)는 중국 그리고 아시아의 남쪽의 국가들인데, 농경과 예술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며, 책과 학습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법과 종교가 있다. 그들은 여전히 여성을 노예로 취급하며 미개한 국가들의 많은 관습을 가지고 있다.</p>	<p>• 반개(half-civilized) 상태는 중국인들과 같은 상태인데, 그들은 농경과 많은 예술들에 대해 이해를 잘하며, 책들과 학습에 대해서도 알며, 법과 종교가 만들어져 있다.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여성을 노예로 생각하며, 보통 그들의 제한 속에 묶어두려 한다. 그리고 미개한 국가들의 관습과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은 외국과의 교역이 거의 없으며, 예술과 학업에서의 진보는 거의 만들지 못한다. 중국, 일본, 남부 아시아, 페르시아, 터키, 북아프리카가 이들 사회상태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다.</p>	
<p>• 문명화된 상태(the civilized state)는 인간사회의 가장 향상된improved 형태이며, 상당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미국, 그리고 아메리카대륙의 약간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다.</p>	<p>• 넷째, 문명화된(civilized) 상태는 폴란드, 남미에서 발견되는데, 과학과 예술 특히 인쇄술도 이해하며, 여성을 동반자로 여긴다. 아직 개화되지(enlightened) 않은 문명화된 이들 국가들의 많은 관습들은 여전히 야만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무지의 상태에 있다.</p>	<p>• 문명화된(civilized) 국가는 과학 [167]과 예술이 잘 이해되는 상태에 있다. 특히 미술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들은 동반자로 대우받는다. 이 등급의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문명화된 것으로만 여겨진다. 그들은 많은 미개한 관습들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대부분은 매우 무지한 상태에 있다.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고 러시아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처럼 그러하다.</p> <p>• 개화된(enlightened) 국가들이 비문명화된uncivilized 지역에 만든 식민지들은 남미와 같이 보통 오랫동안 이러한 상태에 있다. 새로운 정착지들의 독특한 어려움, 위험들과, 개선을 위한 수단들의 부족 때문에, 지식과 세련됨에 있어서 매우 느리게 나아간다.</p>	<p>• 문명화된(civilized) 국가는 과학이라는 형태로 그 지식들을 배출하며, 그것은 기계적 기술에서 세공품의 수준에까지 상승하며,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문학작품을 창출하며, 기존의 환경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위해서 안정된 법률제정, 정책, 전쟁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정신이 공적 도덕을 정화하고 고양하는데 적절한 영향을 행사하는 국가이며, 방어할 수 없는 시민들의 재산들을 존중해줌으로써 마침내 공적 법의 위대한 원칙을 인지하는 국가이다.</p>
	<p>• 다섯째, 개화된(enlightened) 상태의 국가들은 보다 일반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과 예술은 거의 완벽한 상태에 있으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발견된다.</p>	<p>• 개화된(enlightened) 국가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이 있는데, 그들의 지식은 보다 일반적이며 과학과 예술은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에서처럼 대단히 완전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술과 제조업의 모든 분야들이 기계의 도움과 세밀한 노동의 분화에 의해 보다 숙련되고, 생산적이며, 그리고 유용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상업은 지구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p>	

출처 : Worcester, 1819; Woodbridge, 1821; 1824; Malte-Brun, 1824.

학적 방법인 “비교와 분류(comparison and classification)”의 방법을 사용하여 *Rudiments of Geography*(1821)라는 교과서와 그에 동반한 지리부도를 함께 출판하였는데, 여기에서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높은 사회의 상태인 “개화 상태(the enlightened)”를 첨가하여 제시하였다. Craig(2009:38)에 따르면, 이러한 초기의 저자들은 종종 “enlightened”를 단계의 명칭으로보다 발전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 용어로서 종종 사용하였고 엄격하게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civilized”와 혼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발전에 대해 민감했던 미국에서는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문명단계론도 사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덴마크 출신의 지리학자 프랑스에 망명한 콘라드 말트브룬(Conrad Malte-Brun)은 주목받을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컸는데, 그의 「지리학의 원리(Précis de la Gèographie)」(1812)가 미국에서 1824년에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도 문명발전 단계가 “국가의 등급”이라는 항목에서 다루어졌고 ‘savages → barbarians or half-civilized → civilized’의 3단계의 문명발전론의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barbarian을 half-civilized로 보는 관점은 이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세기 초 미국의 지리교과서가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교과서의 내용으로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지리교과서에 이어서 역사 교과서에도 문명발전단계론을 실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지리교과서의 집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굿리치(Goodrich)의 경우, Peter Paley라는 시리즈명을 붙혀 매우 인기가 높았고 지리교과서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도 집필하였는데 문명발전단계론을 삽화와 함께 실었다(표 2 참조).¹⁾

미국에서 지리교과서에 도입된 문명발전단계론은 단계에 따른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사회적 변화와 연결되어졌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인 부분이 여전히 교과서에서 살아남았지만, 종교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과학적인 부분이 전면으로 종교적인 부분이 후면으로 배치되어 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스를 따르던 저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문명의 단계 내지 상태에 대한 내용을 대신하여 기독교 전도의 지도를 삽입하였다(Calhoun, 1984:2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코틀랜드에서 형성된 문

명사회 발전단계론은 문명화된(civilized) 단계가 최종단계였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미국의 중등지리교과서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로서 이용되었다. 그리고 단계론의 변용이 일어나 최고의 단계로 문명화된 단계를 제시되던 것이 미국의 지리교과서에서는 개화 내지 계몽의 단계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문명과 함께 제시되었던, 또는 구별되어 별개의 단계로 제시되었던, 새로운 단계가 추가된 것은 19세기 초 미국의 교육에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수용하고 변용하였던 양상이었다.

3. 19세기 후반 1860년대 미국 지리교과서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

1820년대 미국의 지리교과서에 등장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5단계로 확장되기도 하고 4단계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지리교과서에서 자리를 잡아갔다. 이후 1830년에서 1870년 사이에는 단계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의 표준적인 특징이었다. 어떤 텍스트들은 가장 높은 단계를 “civilized”로 부르고, 다른 교과서들은 “enlightened”라고 하였지만,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당시 중등학교에서 사용하던 지리교과서의 3대 내용영역 중 하나였던 “civil geography” 또는 “political geography” 분야의 중요한 주제였다(서태열, 2019). 즉 문명의 단계들은 “civil geography” 또는 “political geography” 분야에서 세계의 종교, 언어, 인종 그리고 정부 등의 주제와 함께 지리교과서들 속에서 함께 제시되었다. 당시 교과서들은 대부분 세계를 대륙별, 국가별로 기술하였고, 이러한 세계의 지역지리 내용을 다루기 전에 교과서의 도입 부분에 위치하거나, 세계의 지역지리 내용이 끝나고 마지막 부분의 계통지리 내용으로서 삽입되었다. 지리교과서에 도입된 문명단계론은 1870년대까지도 지리교과서의 표준적인 특징이었지만 저자나 상황에 따라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의 학교시스템에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등학교에서는 당시의 학술적 자연지리 내용 중심의 예비대학용 지리교과서가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 교과서들은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실지 않았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중등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지리교과서로는 Mitchell과 Cornell의 것이 있다. Mitchell

표 2. 1860년대 미국의 지리 및 역사 교과서의 문명발전단계론

<p><i>Mitchell's New School Geography: A System of Modern Geography</i> (Mitchell, 1868)</p>	<p><i>Mitchell's New School Geography: A System of Modern Geography, Physical, Political and Descriptive</i> (Mitchell, 1865, 1st edition)</p>	<p><i>Cornell's High School Geography</i> (Cornell, 1867)</p>	<p><i>Peter Parley's Universal History, on the Basis of Geography</i>(역사교과서) Goodrich (1867)</p>
<p>• 사회의 단계(Stages of Society) - 국가들은 다양한 사회의 단계에 있으며, 그들의 조건은 물질적으로 지식, 학습(learning), 그리고 정련화 그리고 기계적인 것들에 대한 그들의 기술에서 이루어놓은 진보(progress)에 달려있다. - 많은 국가들이 삶의 관습(habits)과 향상(improvement)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5개의 등급(class) 즉 야만(savage), 미개(barbarous), 반개(half-civilized), 문명(civilized), 개화(enlightened) (Mitchell, 1868:42-44)</p>	<p>• Civil or Political Geography 제목 하에 사회의 상태들(the states of society) - 인류(mankind)는 그들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어떤 두 개의 등급(class)으로 나누어지는가? 인류는 그들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두 개의 큰 등급으로 즉 야만(Savage)와 문명(Civilized)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의 것은 영구 거주지가 없고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또는 사냥감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닌다. 두 번째의 문명화된 국가들은 도시와 읍을 건설하고, 지속가능하고 인력한 집을 지으며, 질서와 산업, 도덕성, 종교와 관련한 축복받은 것들을 즐긴다. - 이 두 개의 등급은 5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야만(the Savage), 미개(Barbarous), 반개(Half-civilized), 문명(Civilized), 개화(Enlightened) (Mitchell, 1865:35-38)</p>	<p>• 지구의 거주자들 (the earth's inhabitants) - 인류의 사회적 조건과 관련하여 몇 개의 등급(class)으로 나누어지는가? 네개의 등급으로: 즉 enlightened(개화), civilized(문명), half-civilized(반개), savage(야만) or barbarous(미개) → 실명을 개화부터 시작함 (Cornell, 1867:18)</p>	<p>• 표지 4단계 삽화 • 5장 introduction (도입 연속) 세계의 상이한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 인류는 4개의 계층(class)로 나누어질 수 있다. - 야만적인 상태의 사람들, 미개한 상태의 사람들, 단지 문명화된 사람들, 그리고 문명의 가장 높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책의 시작부분에 있는 작은 4개의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해줄 것이다.</p>
<p>• 야만(savage) 상태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수렵, 어로 그리고 땅의 자생적 생산물에 의해 그들은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의 가족을 입고, 낮은 움막이나 작은 토굴이나 동굴에 산다. - 야만 국가들의 일반적 특징은? 그들은 피에 굶주리고 폭력적이고 전쟁에서 잡아온 적의 살을 가끔씩 먹으며, 여성을 노예로 취급한다. - 그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 - 인류의 어떤 부분이 이러한 등급의 예인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애보리진, 북미와 남미의 인디언 부족들 대부분, 캄차카의 부족들</p>	<p>• 야만(savage) 생활이 뜻하는 것은? 야만적 생활은 이동하는 부족들에서 보이는 생존의 가장 낮은 단계이다. 중앙아프리카, 뉴기니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부족들의 상황이다. - 야만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야만인들은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살며, 수렵과 어로 그리고 때때로 곤충, 뿌리, 야생과일을 먹고 산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며, 매우 잔인하고 미신을 믿는다. 어떤 야만인들은 식인종이며, 인간의 생살을 먹기도 한다. - 야만인들은 집에 사는가? ... - 그들의 지식은 무엇인가? ... - 야만인들은 어떻게 통치되는가? ...</p>	<p>- 어떤 나라들이 savage 또는 barbarous라고 불리는가? 예술과 과학에 익숙하지 않으며, 농업이든 상업이든 제조업에서든 그들의 기술이나 산업을 보여 주지 못하며, 그들의 관심을 단지 자급자족을 위한 수렵과 어로에 거의 전적으로 기울인다.</p>	<p>-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진흙이나 막대기로 지은 움막집에서 살며,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냥하여 먹고 산다. 이들은 야만의 상태(savage state)에 산다고 한다. 아메리카 인디언, 아프리카의 니그로(흑인)들 중의 일부, 아시아의 일부 거주민들, 오세아니아의 대부분, 태평양 섬들의 거주민들이 야만인(savages)들이다.</p>
<p>• 미개한(barbarous) 상태의 국가들은 어떻게 사는가? 농경과 소, 양 등의 목축에 의해 ... - 그들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예술 등에 대해 조금 이해하며,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읽고 쓰고 하는 데 익숙하다. - 이 등급의 국가들의 예는? 타르타르, 아라비아, 중앙아프리카의 이동하는 부족들 그리고 아비시니아 거주민들</p>	<p>• 미개(Barbarous)의 상태는 무엇인가? 미개의 상태는 두 번째의 단계이며, 야만만큼이나 낡지는 않다. 타타르, 아랍,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북미의 부족들이다. - 미개는 어떻게 사는가? ... - 미개인들은 무엇을 먹는가? ... - 미개인들의 지식은 무엇인가? ... - 미개인들은 어떻게 통치되는가? 미개인들은 족장(sheiks), 칸(Khan)으로 불리는 가부장적 추장에 의해 통치된다. 타타르, 아랍, 그리고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들이 이 등급에 해당된다.</p>		<p>-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석재와 진흙으로 된 집에 산다. 그들은 약간의 책이 있으며, 교회나 모이는 장소 그리고 경배하는 우상이 없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니그로들의 대부분, 아시아의 많은 부족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미개한 상태(barbarous state)에 있다고 하며, 미개인(barbarians)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관습의 많은 부분이 매우 잔인하다.</p>

표 2. 1860년대 미국의 지리 및 역사 교과서의 문명발전단계론(계속)

<p><i>Mitchell's New School Geography: A System of Modern Geography</i> (Mitchell, 1868)</p>	<p><i>Mitchell's New School Geography: A System of Modern Geography, Physical, Political and Descriptive</i> (Mitchell, 1865, 1st edition)</p>	<p><i>Cornell's High School Geography</i> (Cornell, 1867)</p>	<p><i>Peter Parley's Universal History, on the Basis of Geography</i>(역사교과서) Goodrich (18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개(half-civilized) 국가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농경과 많은 예술들도 웬만큼 이해하며, 문자를 가지고 있으며, 책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또한 법과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약간의 외국과의 교역도 있으나 강한 자를 매우 시기하며, 일반적으로 여성을 노예로 취급한다. - 어떤 국가들이 반개 등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중국, 일본, 버마, 샴, 페르시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개(half-civilized)의 상태는 무엇인가? - 반개는 삶과 그 양식에 있어서 미개의 것들을 개선한 것이다. - 이러한 개선의 증거는 무엇인가? - 반개상태의 농업은 어느 정도의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용한 기계들이 실행되고 개선된다. 도시와 읍이 만들어지고 숭배(adorning)되며, 면학과 문학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 - 그러나 반개국가들은 외부인들을 시기하며, 여성을 노예로 취급한다. 중국, 터키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 등급의 주요 국가들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나라들이 반개(half-civilized)로 불리는가? 예술, 과학 그리고 농업에 대한 지식들이 매우 불완전하며, 그들의 상업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들의 제조업은 적고 그리고 낮은 등급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명화된(civilized) 국가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술과 과학이 잘 이해되며, 거주민들은 주로 농업, 제조업, 상업에서 그들의 생계를 이룬다. - 문명화된 상태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들은 매우 무지하고 미신을 믿는다. 사회의 상류계층과 하류계층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 문명화된 상태의 국가들에 속하는 나라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멕시코 등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명화되고 개화된(civilized and enlightened) 국가들은 무엇인가? 그 국가들은 도덕, 정의 그리고 세련(refinement)에서 가장 큰 진보를 이룬 국가들이며, 그들 중에는 예술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으며, 과학도 부지런히 육성된다. - 문명화되고 개화된 국가들이 체계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 문명화되고 개화된 국가들은 농업, 기계, 산업 그리고 예술(fine arts)에서 큰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안락함과 고급스러움이 제공되며, 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번영을 누린다. 개화된 국가의 대표적 예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다. - 그와 같은 모든 나라들은 문명화(civilized)되었는가? 모든 개화된(enlightened) 나라들이 똑같이 문명화된 것은 아니다. 그 정도는 다양하다. - 각 등급의 각각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많은 등급이 있다. 어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야만적이고, 어떤 야만적 국가들은 반개된 상태에 접근하고, 개화된 국가들 중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나은 국가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나라들이 문명화된(civilized) 것으로 불리우는가? 예술과 과학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고, 농업, 상업 및 제조업에서 어떤 독창성과 근면함을 보여주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enlightened라 불리우는 등급과는 같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나라에서는 거주민들이 견딜 수 있는 집에서 살며, 부유한 자들은 좋은 궁전에서 산다. 사람들은 재능있는 예술들을 가지고 있으나, 학교가 빈약하고 읽고 쓰는 작은 부분만 가르쳐진다. 아시아의 중국, 힌두, 투르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속하며, 아프리카와 유럽의 일부 거주민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으며, 이들은 문명화된 상태 a civilized state라고 부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화된(enlightened) 국가들의 특성은? 주민들의 지성, 모험심, 근면함이 두드러진다. 그들은 가운데서 또한 예술과 과학은 고도의 완성도를 보인다. -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두드러지는가? 여성은 정중하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으며, 자유로운 정부의 원칙들이 이해되며, 교육은 다른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이다. - 이 등급에 속하는 나라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독일계의 일부 국가들 - 개화된 그리고 문명화된(enlightened and civilized) 국가들은 그들의 공공건물과 국가적 용도를 가진 건물들의 수와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그것들 중에는 대학, 병원, 도서관, 다리, 운하, 철도 등은 가장 탁월한 것들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나라들이 개화된(enlightened) 나라로 명명되는가? 예술과 과학에서 가장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농업, 상업 그리고 공업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과 산업을 보여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많은 부분들과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살며, 좋은 가구, 많은 책들, 좋은 학교, 교회, 모임장소, 증기선, 철도 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문명의 가장 높은 상태에 있다.

출처 : Mitchell, 1865; 1868; Cornell, 1867; Goodrich, 1867.

의 지리교과서는 19세기 초반부터 매우 인기가 높았고, Cornell의 지리교과서는 Mitchell의 교과서에 대응하여 18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출판되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저자였던 Mitchell이 1835년 일찍부터 지리교과서에 문명발전단계론을 도입하는 것은, Mitchell이 스코틀랜드계이어서 일찍부터 부친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의 한 부분이었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 내지 사회발전단계론에 대해 익숙했던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1860년대 미국 지리교과서로서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가지고 인기가 높았던 Mitchell이나 Cornell의 지리교과서에서는 모두 half-civilized를 barbarous 단계와는 별도의 단계로 제시되었다. Cornell의 경우 오히려 savage와 barbarous를 합쳐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교과서에 서술된 문명발전단계론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당시의 교과서들은 내용의 이해를 쉽게 하고 암기에 용이하도록 교과서의 내용전개 방식은 거의 대부분 질문-대답 형식으로 서술되었으며, 각 단계별로 단계의 개념, 주거와 의복, 식생활, 지식과 사회생활, 정치 및 행정, 법과 도덕 및 경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1860년대 후반 미국의 지리교과서에 도입된 스코틀랜드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매개로 미국과 일본이 조우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한 인물은 미국을 두 차례 방문한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미국을 두 번째 방문하였던 시기인 1867년 당시에는 미국의 중등교육에서 지리는 다른 교과목보다 인기가 높고 선택률이 매우 높은 교과목이어서²⁾, 뉴욕의 서점에서 미첼(Mitchell)이나 코넬(Cornell)의 교과서처럼 가장 선택률이 높았던 교과서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며(서태열, 2019:384),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를 일본에 가져와 문명론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전거로 활용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처럼 지리교과서를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 교과서들이 문명발전의 과정을 단계별로 명료하게 보여주어 국가나 사회 발전의 지향점, 즉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둘째, 문명발전 단계별 설명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에서 다루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주었기 때문이다. 즉 문명개화에 뒤떨어진 일본이 문명화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미

첼의 지리교과서에 실린 사회 발전 단계 혹은 문명 발전 단계는 문명화 내지 인간진보를 위한 매우 유익한 로드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미첼이 교과서에서 civilization과 함께 사용하였던 enlightenment라는 용어는 당시 아시아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이고,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개화”, “개화문명³⁾”으로 번역하여 도입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를 비롯하여 당시의 서구의 지식을 급속히 도입하던 일본 지식인들이 많은 서양서적을 읽으면서 번역하고 변안한 용어들이 매우 광범위하였고, 특히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어를 번역하여 처음으로 도입한 용어가 매우 많았다(변상숙, 2014).

그런데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가 「장중만국일람(掌中萬國一覽)」(1869)과 「세계국진(世界國盡)」(1869)의 서문에서 미첼과 코넬의 지리교과서를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들 책에서는 문명발전단계론을 모두 4단계로 제시하였다. 이후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론을 펴낸 「문명론개략(文明論之概略)」(1875)에서는 코넬처럼 야만과 미개를 하나의 단계로 합치고, 미첼처럼 문명과 개화의 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합쳐서, 야만-반개-문명의 3단계로 단순화시켜 제시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이러한 3단계는 간명하여 일반인들도 받아들이기 쉬운 뿐만 아니라, 일본이 중국과 같이 두 번째 단계에 위치하지만 중국보다 빨리 문명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문명발전단계론은 미국에서 태평양을 넘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일본에서의 수용과 변용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그리고 미첼의 지리교과서는 문명발전론에 따른 삼화와 도식이 잘 제시되어 있어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개념적 이해를 잘 도와주었다. 미첼 교과서에 실린 문명사회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삼화는 활용하기 편리한데, 후쿠자와 유키치는 「세계국진」에서 문명사회 발전단계에 대한 설명에 이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고 짧은 문구를 삽입하였다(그림 1).

한편, 미국에서 19세기 말이 되면 지리교과서에서 문명발전의 수준이나 단계론은 생략되기 시작하며, 20세기 초에 거의 100여년 만에 지리교과서의 내용으로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하여 전 지구에 걸친 인간 사회와 문명의 발전과정과 그 지역적 분포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지리교과서에 등장하였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 미국에서는 교육 내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Craig(2009)에 따르면, 야만에



(a) 미첼의 교과서(1868)

(b) 후쿠자와 유키치의 「세계국진」(1869)

그림 1. 미첼의 지리교과서와 후쿠자와 유키치의 「세계국진」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
출처 : Mitchell, 1868; 福澤諭吉 訳, 1869b.

서 문명에 이르는 단선적인 진보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한 세기동안 미국의 중등학교 교육의 표준적인 부분이었다.

III. 19세기 아시아에서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의 도입과 활용

1. 일본에서의 문명발전단계론의 수용과 변용

서구의 ‘civilization’이라는 단어를 문명이라는 용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인물이 후쿠자와 유키치였으며,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사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본의 문명화 즉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저작들을 관통하는 주제도 ‘문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문명론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문명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문명과 개화의 과정 및 방향을 모식적인 하나의

틀로서 제시한 것도 역시 후쿠자와 유키치였다. 1860년대 세 차례에 걸친 유럽과 미국 방문은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당시 서구문명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문명화를 위한 논리를 구축해갔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뛰어난 어학실력을 인정받아 토쿠가와 막부의 외교문서의 번역원으로 고용되어, 1860년에 27세에 군함수취단의 개인 비서로 미국을 방문하였고, 1862년 29세에 견구사절단(見歐使節團)의 수행원으로 유럽을 견학하고 영국에서 열린 만국박람회까지 참관한 이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왕성한 집필을 하여 1864년 「서양사정(西洋事情)」 초판본을 마무리하였다. 1867년 34세에 1월부터 6월까지 견미사절단(見美使節團)의 수행원으로 두 번째 미국 방문을 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당시의 세계상과 문명을 연결지어 처음으로 작성한 것은 1862년 유럽을 다녀온 후에 나타난다. 즉 1865년 “당인왕래(唐人往來)”라는 글을 통해 당인 즉 서구인들의 왕래가 커지면서 그들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보다 넓은 세계를 볼 것을 요구하면서 대륙별, 국가별 단계론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미 이때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발전의 수준과 단계가 전 지구에 걸쳐 지역별, 국가별로 달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유럽과 아메리카의 합중국(미국)은 상국(上國)으로,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을 하국(下國)으로 분류하였는데, 아시아는 중간 등급으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자만을 일삼는 국가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 분류에서는 국가의 등급을 지혜, 학문, 의복식, 무술, 포술, 교통수단 등의 문명화의 측면에서의 비교를 하고 있다(표 3 참조).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한 박양신(2001:204-205)에 의하면 이 시기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저술에서 서양을 이적으로 보는 화이관의 전용은 보이지 않으나 서양문명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고해졌고, 중국을 폄하하는 태도를 계속 보인 것은 동아시아의 중국 중심의 화이관의 질서에 대한 도전과 전환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계관의 전환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국민계몽을 위해 출간한 일련의 계몽서 그중에서도 특히 세계지리서에서 잘 나타나는데, 세계를 유럽중심으로 하는 상하의 위계질서로 파악하는 세계상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출간한 세계지리서에서 반복적으로 전개된다. 즉 유럽 문명을 최상위에 두고 문명의 정도에 따라 국가들을 단선적으로 배치시키는 세계상은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세계국진」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후쿠자와 유키치

표 3. 일본 후쿠자와 유키치의 저술에 나타나는 문명발전단계론

“당인왕래(唐人往來)” (1865)	「장중만국일람(莊中万国一覽)」 (1869.1월)	「세계국진(世界國盡)」 (1869.10월)	「문명론개략(文明論之概略)」 (1875)
<p>- 세계의 넓이를 가로 세로 1리의 1평으로 계산하면 840만평 정도이고 그 지면을 5개로 나누어 이것을 오대주로 부르며 아리아주, 에우로파주, 아메리카주, 아후리카주, 오우스타라리아주로 구성된다.</p>	<p>■ 동년 아시아관(미첼 지리서) ■ 1867년 아시아관(코넬 지리서) ● 蠻野文明의 구별(7.9) - 인간의 사는 모습에 따라 그것을 구별하여 2가지 종류로 칭할 수 있다. 그것은 蠻野와 文明으로 말할 수 있다. 蠻野이란 주거에서 항상 머무르는 곳이 없으며 먹을 것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文明이란 항상 머무르는 안전한 집에 살며 예의를 알고 신앙의 교리를 믿고 일에 힘쓰며 순서를 지킴으로써 하늘로부터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종류를 더욱 세분하면 4종류가 된다. 그것은 渾沌, 蠻野, 未開, 開化文明으로 부를 수 있다.</p>	<p>■ 유럽의 본문+삽화 - 혼돈스러운 무지한 상태의 생활 양식으로부터 문명개화에 이르러 가까지의 모습을 순서에 따라 나타낸 그림을 서양의 지리서로부터 옮겨 나타내었습니다. 〈附錄〉 ● 人間의 地理學 - 전 세계의 인종을 5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면 얼굴의 형태나 영리함과 어리석음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들이 가진 생활의 모습이나 생활을 위한 일도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다. (1) 文明開化란 도시를 만들어 시나 마을을 형성하고 살기 위한 장소를 결정해 기본 좋게 살 수 있는 집에 거주하며 일의 순서를 틀리지 않고 마음을 쓰고 몸을 움직이며 예의를 중시해 바른 것을 소중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蠻野이란 살기 위한 장소를 정하지 않고 풀과 나무를 쫓아 장소를 이동하며 소와 양을 기르거나 새와 짐승을 잡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 이상의 두 가지 생활 모습을 더욱 자세히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p>	<p>■ 第二章 西洋の文明を目的とする事 ● 文明의 發展段階(20-24) - 세계의 문명을 논하건대, 유럽 제국 및 아메리카 합중국으로써 최상의 文明으로 보고, 터키,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서 半開의 國(半開國)으로 칭하고,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지목해서 蠻野의 國(蠻野國)으로 칭하며, 이러한 명칭으로써 세계의 통설로 삼아서, 서양제국의 인민은 혼자 자칭 문명을 뽐낼 뿐만 아니라, 저 반개와 야만의 인민 역시 스스로 이 명칭이 왜 꼭되지 않았음을 승복하고, 스스로 半開蠻野이라는 이름에 만족하여서, 굳이 자국의 현상을 자랑하여서 서양제국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자가 없다. - 이른바 그 문명, 반개, 야만의 명칭은 세계의 통설이자 세계의 인류가 인정하는 바이다. - 즉 이것은 인류가 실로 경과해야 할 단계이다. 혹은 이것을 문명의 나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p>
<p>- 5대주 중 아후리카와 오우스타라리아는 下國(하류 국가)로서 주내부에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도 없고 주민도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모자라 과히 학문도 불가능하고 의복이외에 제 도구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모른다. 우선 일본과 비교하면 아이누족 정도로 볼 수 있다.</p>	<p>- 渾沌의 백성은 인간의 가장 하위에 위치하며 금수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황막한 들판을 배회하며 어획을 하거나 풀뿌리와 야생 과일을 먹거나 벌레를 먹고 심한 경우에는 인육을 먹는 이도 있으며 또한 그 성품은 투쟁을 매우 좋아해 신앙의 마음을 취하려는 의지를 모른다. 그 거주하는 집은 풀을 엮어 매우 조악하게 만들며 맨몸을 드러내고 집단 거주하며 ... 아프리카 중앙의 '적도 기니(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 이에 해당된다.</p>	<p>- 첫 번째를 渾沌(혼돈)이라고 합니다. 야만 중에서도 문명이 가장 미발전한 사람들에서 그 생활은 새와 짐승 무리의 생활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이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선주민이 이에 해당합니다. 끝없이 넓은 들판을 뛰어 다니며 짐승과 물고기를 잡고 벌레를 잡아먹거나 야산에 심어 놓은 나무의 열매와 풀뿌리를 식량으로 하기도 합니다. ...</p>	
	<p>- 蠻野의 백성은 약간 진보된 제2등에 위치해 천막 아래에 살고 소와 양을 데리고 거처를 옮기며 고기를 먹고 가축의 젖을 마시며 경작하는 법을 알아 음식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문자가 없지는 않지만 그 문자를 쓰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자는 매우 적다. 조악한 그릇과 도구가 없</p>	<p>- 두 번째를 蠻野이라고 합니다. 혼돈의 사람들 보다는 한 단계 문명이 발전해 있습니다. 중국 북방의 타타르인, 아라비아, 북아프리카의 선주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종류의 사람들은 생활하는 집이 없고 천막을 쳐서 비와 서리를 피하거나 또는 집을 만든다고 해</p>	<p>- 첫번째(단계)는 일정하게 정주하는 곳이 없고 상시로 보는 식품이 없다. 편리를 좇아서 무리를 이루어도, 편리성이 소멸하면 순식간에 흩어져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혹은 정주하여서 농사일과 물고기를 잡고, 먹고 입는 것이 만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기의 사</p>

표 3. 일본 후쿠자와 유키치의 저술에 나타나는 문명발전단계론(계속)

“당인왕래(唐人往來)” (1865)	「장중만국일람(莊中万国一覽)」 (1869.1月)	「세계국진(世界國盡)」 (1869.10月)	「문명론개략(文明論之概略)」 (1875)
	<p>지는 않지만 그 제작은 극히 드물다. 야만의 백성에도 일군의 추장이 있어 '시크스' 또는 '칸'으로 칭해진다. 그 법률은 매우 잔혹하고 또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타르타르, 아라비아 및 아프리카 북방의 원주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p>	<p>도 매우 조악합니다. 물과 풀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천막이나 집을 손으로 들어서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으로 소와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젖을 마시며 약간이지만 농업의 방법을 이해해서 오곡을 먹는 자도 있습니다. 야만의 나라에는 문자가 있지만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는 'Patriarch'라고 해서 족장에 해당됩니다.</p>	<p>용법을 모르고, 글자는 없지는 않으나 학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의 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베푸는 은혜와 위엄에 의존하고, 예기치 않은 화복을 기다릴 뿐이어서, 스스로 머리를 짜내는 자가 없다. 이것을 野蠻이라 명명한다. 문명과 등지기를 아득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p>
<p>- 아세아주도 꽤 좋은 큰 주로서 사람의 수도 많고 산물도 많이 있어 세공으로 만들어진 물건 등은 세계에 이름을 알릴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 내고 학문도 출중해 상당히 아프리카, 오우스타라리아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어떤 이유로 개혁을 잘 하지 못하는 나라에는 천 년, 이 천년 된 고대 사람의 말을 열심히 지켜 조금도 임기응변을 모르고 그저 자만을 일삼는 것과 같다.</p>	<p>未開라는 것은 교화를 받았지만 아직 고루 퍼지지 못해 풍속이 아직 열리지(개화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 백성은 경작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정교함에 이르는 기예의 길을 이해해 인간에게 유용한 물건이 많다. 촌락을 이루어 도시를 세우고 문화가 어느 정도 융성하지만 그 사람들의 성정은 외국인을 꺼리고 여성을 경멸하며 작고 약한 것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중국, 터키의 '페르시아'가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p>	<p>세 번째를 未開 또는 반개(半開)라고 합니다. 아직 진정한 문명개화에 이르지 못하고 반 정도 열려 있는 상태이지만 야만에 비교하면 문명이 훨씬 발전해 있습니다. 농업의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 먹을 것이 많고 예술도 발전해 점차 훌륭히 융성합니다. 단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강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을 싫어하고 부녀자를 경멸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터키, 페르시아 등의 나라들은 반 정도 열린 나라라고 할 수 있다.</p>	<p>- 둘째 단계는 농업의 길이 크게 열려서 먹고 입는 문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유형은 지금 한 국가이나, 그 내실을 자세히 관찰하면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 학문은 활발하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문에 힘쓰는 자가 적고, 세상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심이 심하다고 하여도, 사물의 이치를 탐론할 경우에는 의문을 발동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바로 잡는 용기가 없다. 남을 흉내내는 잔꾀는 능란하여도 새롭게 그 무엇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옛것을 익히는 것을 알면서도 옛 것을 개선할 줄을 모른다. 이것을 半開라 일컫는다.</p>
<p>- 아메리카주도 북아메리카의 합중국은 별개의 단계로 볼 정도로 개화된 나라로서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上國(상류 국가)로 부를 수 있으며 그밖에 이만큼 특별히 눈에 띄는 나라는 없다. 유일하게 주 내부가 남김없이 번창해서 학문도 무술도 월등하게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포술 조련의 번성함은 물론 그 외에 증기선, 증기차 등의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 사람 손을 사용하지 않고 전쟁의 대비뿐만 아니라 평시의 사용도 가능해 안락함이 있어 나라의 강함은 유럽주에 필적한다.</p>	<p>- 開化文明의 백성이란 예를 중요시해 의를 귀하게 여기고 재능이 영민하고 정신과 마음이 명철(明哲: 사리에 밝다)하여 문화가 날마다 기예가 달마다 진보한다. 종사하는 일은 농작업이 힘쓰는 것은 다양한 기술로 몸을 편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즐겁게 하여 하늘의 행복의 향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아메리카합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사람들은 開化文明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 - 또한 애초에 開化文明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교화를 받는 정도에는 후박(厚薄)의 차이가 없지는 않다. 아메리카합중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법률을 세워 권위를 제약해 국민 한명 한명이 교화를 받고 자유를 얻어 선을 행하는 자는 행복이 많고, 덕을 베푸는 자는 몸이 평안하다. 이를 開化文明의 진정한 상태라고 부를 수 있다.</p>	<p>네 번째를 文明開化라고 합니다. 예의를 중시하고 올바른 법칙을 인정하며 사람의 마음은 상냥하고 생활의 모습은 온화하며 여러 가지 일의 방법이 매일 새로워지고 학문은 달마다 진화하며 농업을 열심히 행하고 물건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며 여러 가지 예술에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국민은 일에 만족해 하늘로부터 행복을 받고 장래에 대해 기대가 있으며 자연스럽게 충만해 집니다. 아메리카합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나라들은 문명개화의 정도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온 세상의 사물을 규칙 속에서 농락하지만, 그 범위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유로이 활동을 하고, 사람의 기풍을 쾌활하게 발전시켜 과거의 관습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덕을 쌓고 스스로 지혜를 연마하여,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였다 하지 않고, 조그만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대성을 도모하고, 앞으로 나아가되 물러서지 않고, 도달하여서도 멈추지 않고, 학문의 길은 허위가 아니더라도 하며 발명의 토대를 개척하였고, 상업업은 날로 번성하여 행복의 근원을 깊게 하였고, 인지(人智)는 이미 오늘 사용하고도 그 얼마간을 남게 두었고, 그것으로써 후일을 도모하는 것과도 같다. 이것을 현재의 文明이라고 한다.</p>

출처 : 福澤諭吉, 1865; 1869a; 1869b; 1875.

가 편역한 세계지리서를 통해 유럽문명 중심의 단선적 발전론에 의거한 세계상은 일본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갔던 것이다(박양신, 2001:205-206).

그런데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막부말기까지 활동이 많았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메이지 유신의 주도세력들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이미 토쿠가와 막부 말기에 일본은 세계로의 주된 창구였던 네덜란드와 네덜란드 중심 난학이 중심이었던 것에서 메이지 개혁이후 유럽과 미국 특히 영미권의 학문과 지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본의 지식인들도 네덜란드 유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난학파들과 새롭게 등장한 영미파들로 구분될 수 있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유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의 미국 방문과 한 차례의 영국 방문을 하여 풍부한 해외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영국 방문은 한차례였지만 당시 런던에서 열렸던 만국박람회까지 참관하여 서양문명의 증폭기와 같은 변화상을 직접 목격하였고, 미국에서는 근대 신흥국가로서 급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왔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1868년에 「훈몽공리도해(訓蒙窮理圖解)」와 「서양사정(외편)」을 출판하였다. 전자는 오늘날의 물리학 분야와 자연지리학 분야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서적인데, 그가 구입했던 Natural Philosophy 관련서 3권, 과학입문서 1권, 지리서 3권(Mitchell 1866년, Cornell 1866년, 영국 Bohn 지리서 1862년판)을 인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1867년 미국 방문시 구입했던 책들이었다. 후자 「서양사정(외편)」은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Burton(1852)의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 and Private Instruction*⁴⁾의 전반부의 사회경제 부분을 주로 번역하여 실었다. 이 책은 가족, “개인의 권리와 의무”, “문명”, “경쟁시스템으로서 사회” 등의 여러 가지 주제별로 설명을 해나가는데, 세 번째의 주제가 문명이었다. 앞 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계승하고 있던 Burton은 이 부분에서 미개(barbarous)에서 문명(civilization)으로의 진보의 과정과 반개(half-civilized)의 중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오직 문명화된 상태에서만 공정하게 펼쳐지고 전체 시스템이 계몽됨으로써 문명은 진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 번역을 통해, 개인에서 사회에 이르는 권리, 의무, 제도 및 기구 등 서구 문명의 발전상뿐만 아니라, 미개와 반개를 넘어서 문명화 단계

에 이를 것을 제시한 내용을 빠르게 흡수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Burton의 책을 번역하여 「서양사정(외편)」으로 긴급하게 출판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문명의 여러 가지 양상과 개혁의 방향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Burton이 “civilization”라고 절의 제목을 표기하였는데,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를 “世の文明開化”로 번역하였다. 즉 civilization을 문명과 개화 즉 civilization과 enlightenment의 합성어로 표현하였던 것인데,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첼의 지리교과서의 단계에 대한 설명에서 “civilized and enlightened”의 용례를 원용하여 번역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후쿠자와 유키치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그가 구입해 해온 서적의 저자인 버튼(Burton)은 당시에 명성이 크게 높지는 못했지만, 버튼의 스승은 에든버러대학(Edinburgh University)의 저명한 스코틀랜드 사상가인 윌리엄 해밀턴(William Hamilton, 1788-1856)이었으며, 그는 스미스, 흄, 퍼거슨 등의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가 1세대들을 이어 후속세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가들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고 있었던 셈이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론개략」의 앞부분의 핵심적인 논의의 틀을 구성하는 데는 버튼의 문명론과 미첼의 단계론을 활용하였고, Craig(2009)에 따르면 이후에 후술하는 버클(Buckle)과 기조(Guizot)의 문명론을 함께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화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미첼(Mitchell)의 지리교과서에 실린 사회발전의 단계 혹은 문명발전의 단계는 문명화 즉 인간 진보를 위한 매우 유익한 로드맵이었다. 특히 미첼이 교과서에서 civilization과 함께 사용하였던 enlightenment라는 용어도 당시 아시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문명개화”, “개화문명”으로 번역되어 도입되었다.⁵⁾

1869년 후쿠자와 유키치는 2권의 지리서 즉 「장중만국일람」(1월)과 「세계국진」(10월)을 출판하였다. 1월에 출판된 「장중만국일람」은 포켓북의 형태로 만들어진 작은 크기의 서적인데, “지구오대주(地球五大洲)의 분별(分別)”, “대양(大洋)의 심천(深淺) 대산(大山)의 고저(高低)”, “세계(世界) 중(中)의 인구(人口)”, “인종론(人種論)”, “만야문명(蠻野文明)의 별(別)의 순서로 11개의 주제별로 나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만야문명의 구별”에서 만야와 문명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혼돈

(渾沌), 만야(蠻野), 미개(未開), 개화문명(開化文明)으로 문명의 4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1867년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뉴욕의 애플튼 서점에서 *Mitchell's New School Geography*의 1866년 2판을 샀던 것을 번역한 것이었고(Craig, 2009), 교과서의 구조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명료하였기 때문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메이지 일본에 있어서 문명과 개화의 로드맵으로서 제시하기에 대단히 유용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같은 해 10월에 「세계국진」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서 문명 발전의 과정을 본문의 유럽을 다루는 장에서 4장의 삽화를 제시하면서 생활양식의 변화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혼돈스러운 무지한 상태의 생활양식으로부터 문명개화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순서에 따라 나타낸 그림을 서양의 지리서로부터 옮겨 나타내었습니다”라고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문명발전의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여기에서는 문명발전을 문명개화(文明開化)와 만야(蠻野)로 구분하고, 만야는 만야(蠻野)와 혼돈(渾沌)으로 세분하고, 문명개화를 미개(未開) 또는 반개(半開)와 문명개화로 세분하여 4개의 단계를 제시하였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설명은 거의 미첼의 서적을 번역하여 그대로 가져왔다.

일본에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개략」에서 거의 정점에 이른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그동안 문명론과 관련하여 번역하고 저술한 것을 모두 집약하였다. Craig(2009)가 「문명론 개략」을 분석한 것을 보면, 제일 앞쪽의 3개의 장은 Mitchell과 Burton의 책에서 가져오면서 Buckle과 Guizot의 것을 약간 삽입하였는데, 문명발전의 3단계론은 미첼에서 가져왔고 각 단계에 대한 설명도 빌려왔다. 그리고 다음의 4개의 장은 Buckle의 *History of Civilization in England*에서 가져왔고, 제8장은 Francis Guizot의 *General history of civilization in Europe*의 내용을 요약하고 일본과 서구간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1장에서 문명에 대한 개념적 탐색을 바탕으로 2장에서 “서구문명을 우리의 목표로”라는 제목하에 문명-반개-야만의 3단계의 압축적인 문명의 길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문명의 개념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응집력있고 정신적으로 통일된 전체로서 문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보다 문명의 개념을 한 차원 높게 보여준다(Craig, 2009).

후쿠자와 유키치는 미첼의 틀을 그대로 원용하여 오스트레일리아와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첫째의 단계는 “야만”, 일본이 중국, 터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속하는 두 번째의 단계인 “반개”,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가 “문명” 단계로 제시하면서, 이는 전 세계를 통해 사용되는 것이며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미국의 지리교과서와 버튼(Burton)의 저서를 통해 얻은 지식들을 활용하여, 조야한 상태에서의 출발하여 높은 세련된 상태로의 국가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싶어 했던 것이며(Craig, 2009:145), 후쿠자와 유키치의 저술과 이러한 문명론은 이 시기에 일본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

한편, 일본에서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련의 지리서들과 「서양사정(외편)」을 통해서 도입한 이후, 다른 저자들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우치다 마사오(内田正雄)가 1870년부터 시작하여 1876년 사망 전까지 집필하였고, 니시무라 시케키(西村茂樹)가 1880년 제4편 아메리카를 완성하였던 방대한 분량의 「여지지략(輿地誌略)」에도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나타난다. 우치다 마사오의 기반은 난학(蘭學: 네덜란드학)이었고 네덜란드의 지식인들은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기술하지 않았음에도, 우치다 마사오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종합하고 집대성하려는 열정으로 주로 스코틀랜드의 계몽사상과 그 영향을 받은 미국에서 수용되고 활용되었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그의 역작인 「여지지략」에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에서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의 도입과 전개

한국의 개화기에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유길준에 의해 도입되어 당시 한국 사회의 개혁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길준이 일본 유학 중 급히 귀국한 후 1882년 12월에 쓴 「세계대세론(世界大勢論)」에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길진숙(2004: 330)에 따르면, 한국에서 문명론은 유길준이 1881년경 가장 먼저 사용하였으며,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이 일본 유학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에 사용된 것이었다.

유길준의 「세계대세론」은 전반부에서 세계의 “수이(殊異)” 즉 세계가 이렇게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6개

항목에 걸쳐서 다루었고, 중간 부분에 세계 역사의 보편적 흐름을 제시하고 난 후, 후반부에 지구 전체의 객관적인 모습과 그에 따른 자연현상들을 다루었는데, 많은 분량의 지리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유길준은 「세계대세론」을 통해 인류문명과 역사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려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전체 구조의 한 가운데 개화의 차이와 세계 역사를 제시한 점은 매우 특징적이다.

「세계대세론」은 서술 구조의 측면에서는 그가 유학하였던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장중만국일람」과 매우 유사하다. 「장중만국일람」이 11개의 주제별로 나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며 포켓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세계대세론」도 14개의 주제별로 나열적으로 기술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장중만국일람」의 마지막 부분에 세계의 문명 도시를 다루었던 틀과 유사하게, 유길준이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쓴 「서유견문」의 마지막 두 개의 장에 걸쳐 유럽의 도시들을 다루는 구조를 보여주었다(서태열, 2019).

「세계대세론」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한 박한민(2015: 82-83)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대세론」의 전반부의 인종수이(人種殊異), 종교수이(宗教殊異), 언어수이(言語殊異), 정치수이(政治殊異), 의식거처수이(衣食居處殊異), 개화수이(開化殊異), 세계역사일람(世界歷史一斑)의 7개의 항목이 우치다 마사오의 「여지지략」 권1의 내용과 일치하는데, “개화수이”는 거의 일치하며, “의식거처수이”는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밝혔다. 문명발전의 단계론에 해당하는 “개화수이” 항목을 보면, 문명의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은 유길준이 우치다 마사오의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용하여 거의 일치한다. 우치다 마사오는 문명의 단계를 만이(蠻夷), 미개(未開), 반개(半開), 문명개화(文明開化)로 4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유길준은 야만(野蠻), 미개(未開), 반개(半開), 문명(文明)으로 4단계로 제시하였다. 유길준은 우치다 마사오의 만이(蠻夷) 단계를 후쿠자와 유키치가 사용했던 용어인 야만(野蠻)으로 칭하고 우치다 마사오의 것을 보다 세분하여 3가지의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미개(未開)의 단계는 우치다 마사오가 유목, 유목과 농경 병행, 농경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처럼 거의 동일하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고, 반개와 문명 단계의 내용도 우치다 마사오의 설명을 거의 상당부분을 가져왔다.

유길준이 이처럼 「세계대세론」에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제시한 것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의 문명화와 근대화의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한국의 근대화의 길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길준의 「세계대세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최덕수 등(2015)에 의해 이루어져 문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그런데, 유길준이 미국 유학도중 귀국하여 연금생활 중에 저술한 「서유견문(西遊見聞)」(1889)에서는 「세계대세론」과는 다르게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개략(文明論之概略)」(1875)처럼 3단계로 간명하게 제시하고 문명이라는 용어보다 개화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였다. 유길준은 개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화란 인간 세상의 천만 가지 사물이 지극히 선하고도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개화의 경지 즉 개화의 수준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으며 상대적인 것인데, “어떤 것이 개화된 경지라고 한정할 수 없다. 사람들의 재주와 능력 정도에 따라 높거나 낮은 등급이 있지만, 국민들의 습속과 나라의 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유길준, 허경진 역, 2004:393-394)

그리고 유길준은 문명발전의 단계에 따른 개화의 단계를 “아직 개화하지 않은 지”, “반쯤 개화한 지”, “개화한 지”의 세 가지의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유길준이 「세계대세론」에서 제시하였던 개화의 단계는 사회, 정치, 경제 등을 포함하는 사회전반의 상태와 지구적 양상을 설명하는 것인데 비해, 「서유견문」에서는 주로 마음가짐, 태도, 습속(풍습) 등 주로 정신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인격과 품성을 중심으로 개화의 방향과 목표를 간명하게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도록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유길준이 개화에 대해 기술한 것을 보면, 개화의 과정은 변화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화를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이며, 개화한 나라이든 개화하지 않은 나라이든 어떤 나라에 있던 개화한 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길준이 「서유견문」에서 제시한 개화의 3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화한 지는 천만가지 사물을 연구하고 경영하여,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약한다. …… 그 진

취적인 기상이 웅장하여 사소한 게으름도 없고, 또 사람을 접대할 때에도 말을 공손히 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능한 자를 본받고 능치 못한 자를 불쌍하게 여긴다. …… 국민이 그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여러 가지의 개화를 함께 힘쓰는 자들이다.

반쯤 개화한 자는 사물을 연구하지 않고 경영하지도 않으며, 구차한 계획과 고식적인 의사로써 조금 성공한 경지에 안주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도 또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은 있어서, 사람을 접대할 때에 능한 자에게 칭찬하는 일이 적고, 능치 못한 자는 깔본다. …… 국민이 저마다 자신의 영화와 욕심을 위해 애쓸 뿐이지, 여러 가지의 개화를 위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자들이다.

아직 개화하지 않은 자는 즉 **아만**스러운 종족이다. 천만 가지 사물에 규모와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경영하지도 않는다. 능한 자가 어떠한고 능치 못한 자가 어떠한지 분별하지도 못하여, 거처와 음식에도 일정한 법도가 없다. 또 사람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도 기강과 예법이 없기 때문에, 천하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유길준, 허경진 역, 2004:394-395)

이처럼 유길준이 「서유견문」에서 제시한 개화의 3단계론은 「세계대세론」에서 우치다 마사오의 4단계론을 가져왔던 것을 버리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론개략」에서 제시한 ‘아만-반개-문명’의 3단계의 형식을 취하는데, 문명을 사용하지 않고 개화만으로 “아직 개화하지 않은 자”, “반쯤 개화한 자”, “개화한 자”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유길준이 「세계대세론」, 「서유견문」에서 개화의 단계론을 제시한 것에 대해, 장인성(2019:201)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미국을 통해 스코틀랜드 문명사회 발전단계설에 접촉했고 유길준은 이를 수용했다고 분석하였다. 즉 유길준은 후쿠자와 유키치를 통해 문명사회 단계설을 수용하였는데, 유길준은 스코틀랜드 문명사회론을 변용된 형태로 받아들인 것이며, 당시 미국이나 스코틀랜드의 논저에서는 문명에서의 단계를 ‘class, stage, status’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를 층급으로 표현하였고 유길준은 이를 등급으로 받아들였다.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미첼과 코넬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스코틀랜드 문명론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였고,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는 스코틀랜드 문명론자들이 제시한 단계론 중에서 스미스의 4단계론

이 아닌 퍼저슨의 3단계론을 이어받은 버튼의 문명론을 「서양사정(외편)」으로 번역하였으며, 유길준은 이를 다시 한국적 상황과 실정에서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었다.

그런데,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의 한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후, 1895년 갑오개혁 이후 학부에서도 개화와 계몽을 위한 세계지리 지식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세계지리서를 편찬하고 출판하였다. 학부는 직접 편집한 초급 세계지리서인 「소학만국지지(小學萬國地誌)」(1895)에 이어, 1902년 4월에 일본인 야즈 쇼에이(矢津昌永)가 저술한 「중학만국지지(中學萬國地誌)」(1896)를 번역하여 「중등만국지지(中等萬國地誌)」로 발간하였다. 야즈 쇼에이(矢津昌永)의 「중학만국지지」에는 일본에서 세계지리교과서에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문명단계론이 실려 있었고, 이 번역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다.

학부에서 이 세계지리서를 1902년에 번역하여 내놓기 이전에, 한국의 근대신문에서 문명론과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 등장하였다. 길진숙(2004:332)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신문이라 할 수 있는 관보형식의 〈한성순보〉나 〈한성주보〉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지리를 많은 분량으로 실었으나 문명론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이후에 등장한 〈독립신문〉이나 〈매일신문〉에서는 문명론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실렸으며, ‘문명개화한 나라’, ‘문명한 나라’, ‘개명한 나라’, ‘개화한 나라’의 상태를 열거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

신문에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독립신문〉에 처음으로 실렸다. 개화파가 주도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던 독립신문은 1899년 2월 제38호에 “나라 등수”라는 논설에서 미개화, 반개화, 개화, 문명으로 제시하고(표 4), 조선의 나아갈 방향을 논하였다. 〈독립신문〉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일심협력하여 자기 나라의 문명개화국 등수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문명의 등급에 따른 국가들을 제시하고 있다. 1등 문명국으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를, 2등 개화국으로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덴마크, 네덜란드를, 3등 반개화국으로 대한, 청국, 태국, 페르시아, 미얀마, 터키, 이집트를 제시하였고, 4등은 야만국인데 예는 들지 않았다. 그리고 〈독립신문〉은 문명개화국의 등수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사회체제, 경제, 생활양식, 해당 지역을 제시하여 세계적인 상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시에 사용되지 않았던 문명개화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은 일본의 영향도 있었을 것

표 4. 개화기 지리서에 실린 문명사회 발전단계론

<p>〈독립신문〉 제38호 광무3년(1899) 2월 23일자(4면)</p>	<p>「中等萬國地誌 一卷」 광무6년(1902) 4월 1일 (개화기 학부 번역, 일본 明治29年(1896))</p>	<p>「初等地理教科書」 (國民教育會, 新刊) 광무11년(1907) 6월</p>	<p>「初等萬國地理大要」 (안중화, 휘문관) 융희2년(1908)</p>
<p>(나라 등수) - 현금 동 서양 각국이 다 등수가 있스니 데—등은 문명국이요 그 다음에는 마지 화국이라 …… 죽기를 무릅쓰고 정부 뒤를 받쳐 주는 고로 몇히가 아니 되어 조국의 나라이 데—등 문명 마지 화국 등수에 올라 가니 이는 다 그 나라 정부와 보익성이 일심 합력하는 스마르기이어나와</p>	<p>• 社會의等級 - 社會는 發達의 度에 應호야 此 未開, 半開, 愷明의 三大級에 分호느니라</p>	<p>■ 第四節 社會進化의 程度 - 社會는 人類가 生存競爭上의 必要로 互相結合호야 成立호는者라 其發達의 遲(늦을지)速과 狀態의 文野가 有호느니라 此는 天然의 又 人類의 關係에 因生호이라 是以로 四等級에 大別호느니라 曰野蠻曰未開曰半開曰文明이니라</p>	<p>■ 第四課 文明等級 - 萬國의 人民이 其國의 文野等級을 因호야 四種으로 分호느니라</p>
<p>- 야만국들은 괴록 홀리 것 업거니와 …… - 야만국이라 말 함은 도모지 레의 럽치를 몰고 짐승과 다름이 업스며 다만 흉포호 일민호 하는 나라를 이룸이라</p>		<p>- 野蠻人은 社會의 最卑低호는 者니 人類가 個個分難호고 協同의 心이 小無호고 오작 互相爭鬪호야 倫理를 不知호고 昆蟲魚獸와 草實木皮로 生活을 作호느니라</p>	<p>- 四는 野蠻國民이라 性情이 凶暴호며 知識이 絶無호고 漁獵으로 生活호이니라</p>
	<p>- 未開社會는 人民이 協同호는 心이 小호야 恒常散在호고 或 僅僅히 小部落을 成호나 昆蟲魚獸를 食호고 生活이 甚劣호며 其中最劣호는 種族은 協同이 何物인지 全然不知호고, 한갓 互相爭鬪호는 者有호느니라 此는 野蠻人이오 其 稍히 進歩호는 者는 往往히 大部落을 成호야 酋長一人을 戴호고 或은 牧畜을 爲業호야 …… 水草를 逐호야 移轉호는 張幕人種이 有호고 ……</p>	<p>- 未開人은 野蠻人보다 稍(적을) 초히 進歩호는 者니 部落을 能成호야 酋長이 有호며 牧畜으로 業을 作호고 張幕으로 家屋을 삼아서 水草를 逐호야 移轉호는 者도 有호느니라</p>	<p>- 三은 未開國民이라 書籍과 教育이 無호고 衣食住三件事에 一定호 規模가 無호이오</p>
<p>- 대한과 청국섬라와 파사와 먼전과 토이귀와 은금 등 나라는 반마지 화국이라 하며 …… - 반마지 화국이라 말함은 그 나라 정치와 풍속들이 혹 아름다운 일이 있스나 대개 十 분에五六분은 마지 화호 일이 만함을 이룸이요</p>	<p>- 半開社會는 未開에 비호면 稍히 進歩호야 人民이 集居協同호고 政府를 設立호야 法律制度를 具호고 其民은 專혀 農耕으로 爲業호며 或은 商業을 營호고 或은 工業을 勉호야 其技藝學術等도 可觀호는 者가 有호느니라 社會의 組織이 完全치 못호야 弊害가 不少호느니라</p>	<p>- 半開人은 一定호 住所가 有호며 又 集居協同호야 政府를 設호고 食料는 農業에 專依호며 又 商工과 牧畜을 兼行호고 其技術도 可觀호는 者가 稍有호느니라 社會의 組織이 完全치 못호니라</p>	<p>- 二는 半開國民이라 文明國에 不及호나 文學과 農業製造호는 技術이 缺乏호지 아니호이오</p>
<p>- 일본과 이티리리와 아라사와 명말과 하란 등 나라는 마지 화국이라 하며 …… - 마지 화국이라 말함은 그 나라 정치가 문명국과 같호나 압헤 조금 남은 길이 잇서 주먹가편으로 족초가기를 깎아 사불니함을 이룸이요</p>	<p>- 開明社會는 社會의 組織이 總히 完全호고 政治는 國民의 輿論을 從호야 行호고 人民의 生命財產이 安全호며 一般教育이 進歩호야 知識과 道德이 高明호고 職業은 分業法이 行호야 人民이 富饒(넉할)호고 國體가 甚強호느니라 此는 現世의 幸福을 享호는 者니라</p>		
<p>- 대개 세계에서 말하기를 영길리와 미리건과 불란서와 터국과 오드리 등 나라는 데1등 문명국라하며 …… - 문명국이라 말함은 그 나라의 법률 장형과 모든 다스리는 일들이 높고 공평호야 무식호 보익성이 업고 사름마다 자유권이 있스며 나라이 지화 세계가 되어 요순 때와 다름이 업는 것들을 이룸이요</p>		<p>- 文明人은 社會의 組織이 完全호야 政治는 國民全體의 輿論을 協和호야 法律과 制度가 善美호고 人民은 一般教育이 普洽호야 知識이 高尚호고 又 其職業은 分業法을 用호며 國力은 富強호야 人民의 發達이 極度에 至호는 者니라</p>	<p>- 一은 文明國民이라 發達호는 性質이 有호야 百般의 學藝技術과 生活程度가 日日進歩호이오</p>

출처 : 독립신문, 1899년 2월 23일자; 학부, 1902; 국민교육회, 1907; 안중화, 1908.

으로 보인다.

《독립신문》에서 문명발전단계론을 실은 이후, 개화기 학부가 1902년에 번역한 「중등만국지지」에서는 사회의 발전 정도를 “사회 등급(等級)”으로 기술하여 3등급으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일본의 계몽기에 제시되었던 단계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 요소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사회의 수준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도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1875)에 의해 완성되어 야만, 반개, 문명으로 제시된 3단계론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였으므로, 미개(未開), 반개(半開), 개명(愷明) 3단계로 제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후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많은 지리 서적들이 편찬되고 지리 관련 글들이 학회지에서도 실렸는데(남상준, 1992; 서태열, 2013), 당시 편찬된 서적 들 중에 「초등지리교과서(初等地理教科書)」(국민교육회, 1907)와 「초등만국지리대요(初等萬國地理大要)」(1908)에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실었다. 전자는 사회진화의 관점에서 후자는 문명의 등급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전자는 사회 여러 분야의 발전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문명국과 국민에 초점을 두고 간략히 기술하였다. 이처럼 국권을 잃어가던 시기에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리교과서에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다루어 나갔던 것이며, 여전히 문명과 야만, 문명인과 야만인의 이분법에 의한 문명론은 지속되었다.

V. 결론

이 연구는 18세기 스코틀랜드와 프랑스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 19세기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수용되고 변용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는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시대의 주요한 키워드였던 진보, 계몽, 문화, 문명이라는 개념들의 의미 연결망 속에서 형성되었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 19세기 전 세계에 걸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으며, 그리고 차용되고 원용되면서 발전해 나갔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19세기 지리교과서에 다루어졌던 이른바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 전파되고 적용되었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에서 나타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사회들이 상이한 생존양식에 기초하여 연속적인 단계를 통해 발전을 겪는다는 아이디어 속에서 구현되었다. 계몽주의 단계론은 인간 사회가 상이한 생존양식에 따라 단계 패턴을 보이면서 보편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애덤 스미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경제적이었는데 반해 퍼거슨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들을 강조하였다. 퍼거슨이 제시한 ‘야만-반개-문명’으로 이르는 3단계 모형은 버튼에 의해서도 유사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둘째,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국가인 미국은 프로테스탄티즘을 공유하는 스코틀랜드에서 제시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미국은 정치적 독립을 확장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입장이어서, 19세기 초 미국의 지리교과서에서 수용되었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스코틀랜드의 3단계론에서 개화(enlightenment) 단계가 추가된 4단계, 5단계론으로 확장되어 나갔고 이후 100여 년간 미국 지리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았다.

셋째, 미국에 수용된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은 유연하게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외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던 일본의 토쿠가와 막부에서 파견하였던 방미 사절단의 수행원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뉴욕의 서점에서 미국의 지리교과서들과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가인 버튼의 서적을 구입하고 번역하면서, 이 책 속에 있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문명개화에 열성적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미국에서 가져온 이 책들을 번역하여 출판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문론과 문명론을 펼치는 저서들의 집필을 통해 야만, 반개, 문명에 이르는 3단계의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더욱 정교하게 제시하였다.

넷째, 이 시기에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에게서 그리고 미국의 더머아카데미(Dummer Academy)에서 유학을 했던 유길준은 일찍부터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숙지하고 있어서 한국의 개화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하였는데, 후쿠자와 유키치의 3단계론을 변용하여 미개화, 반개화, 개화의 3단계를 「서유견문」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을 위한 교과서에서도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가 및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을 실었다.

그런데, 구미제국에서 문명론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아시아로 유입되었지만, 특히 문명사회 발전단계론이 계몽시대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의 사회 및 국가의 발전의 전망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것처럼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의 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이론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서구화와 문명화를 통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루지 못한 개화의 꿈처럼 많은 과제를 남기고 상실되었다. 지리교과서를 매개로 전개되었던 문명 사상의 교류와 전파는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많은 흔적을 남겼고, 그 의미를 재음미하고 재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되었다.

註

- 1) 서명일(2014)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800년대 말 육영공원에서 정운호가 굿리치(Goodrich)가 쓴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였다고 길모어(Gilmore)가 남겼으며, 당시 육영공원에 왔던 미국인인 헐버트(Hullbert)가 지리 쪽을 맡았다면 길모어는 역사 쪽을 맡아서 그 당시 미국에서 인기 높았던 굿리치의 Peter Paley 시리즈의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였다(Goodrich, 1867).
- 2) 지리가 독립교과로서 매우 인기가 높았던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880년 오하이오주에서 31,000명만이 미국 역사를 들었는데, 이에 비해 267,000명이 지리를 들었다. 사실 역사가들이 지리가 독립된 교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와 맥락 속에서 인종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좋은 역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넓이라는 측면에서 지리는 19세기 교육과정에서 중심적이었다. 1885년 Jersey City High School의 입학시험은 학생들에게 지리, 대수, 산수, 역사 그리고 문법이라는 5개 과목을 치렀다”(Schulten, 2001:94).
- 3) ‘enlightenment’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화 등 몇 가지 용어로 번역되었고 이후에 계몽으로 번역되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개화로 번역되었다.
- 4) 이 책은 챔버스(Chambers) 형제가 편집한 것으로 표지에 표기되어 있는데, Craig(1984)의 연구에 의

해 원저자가 버튼(Burton)임이 밝혀졌다.

- 5) 후쿠자와 유키치와 당시 서구화를 지향했던 일본인들은 많은 서양서적을 읽고 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개념과 용어들을 번역하고 변안한 것이 매우 광범위한데, 서양의 용어들의 의미 또한 다양하게 해석되어서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여전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았다. ‘enlightenment’는 초기에는 주로 개화, 이후 계몽 등으로 번역되었다. Craig(2009)에 따르면 Kai는 개방을 의미하며 ka는 변화를 의미하는데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9대 왕인 kaika(開化)를 선택했다고 하며, 국내에서는 개화라는 용어는 이미 주역 등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용어라고 보고 있다.

참고문헌

- 국민교육회(國民教育會), 1907, 「초등지리교과서(初等地理教科書)」, 서울: 국민교육회.
- 김진숙, 2004, “독립신문 매일신문에 수용된 문명/아만담론의 의미 층위” 국어국문학, 136, 321-353.
- 김연우, 2017, “세계지리교과서 輿地誌略에 보이는 문명관과 아시아인식” 일본역사연구, 45, 29-58.
- 김영식 김근배 편, 「근현대 한국사회의 과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김응중, 2009, “‘문명’의 개념과 문명사 연구” 역사와 담론, 52, 221-243.
- 김현주, 2004, “서유견문과 계몽기 知的場” 유길준, 허경진 역, 2004, 「서유견문, 서울: 서해문집.
- 나인호, 2003, “‘문명’과 ‘문화’ 개념으로 본 유럽인의 자기의식(1750~1918/1919),” 역사문제연구, 10, 224-225.
- 남상준, 1992, “한국 근대학교의 지리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대환, 2010, “1880년대 문명개념의 수용과 문명론의 전개” 한국문화, 40, 221-248.
- 류준필, 2001, “‘문명’·‘문화’ 개념의 형성과 ‘국문학’의 발생: 국문학이라는 이데올로기 서설” 민족문화사연구, 18, 6-41.
- 박근갑, 2014, “역사, 문명, 진보 - 후쿠자와 유키치와 유길준의 시간 인식” 사총, 83, 169-201.
- 박상현, 2015, “계몽주의와 역사주의 - 스코틀랜드 역사학과의 ‘이론적 역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6, 283-314.

- 박양신 2001, “후쿠자와 유키치(복택유길)에 있어서의 문명과 독립” *한양일본학*, 9, 197-222.
- 박양신 2008, “근대 초기 일본의 문명 개념 수용과 그 세속화” *개념과 소통*, 2, 33-74.
- 박한민 2015, “유길준 《세계대세론》의 전거와 저술의 성격” 최덕수·이토 슌스케·박한민·김형근·유바다·양진아·김윤화,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59-102.
- 변상숙 2013, “福澤諭吉의 素本 世界國畫에 나타난 지명표기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학보*, 56, 59-74.
- 변상숙 2014, “明治期の 外國地名 表記 研究 후쿠자와의 지리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상숙 2017, “복택유길(福澤諭吉) 지리서에 나타난 외국지명의 한자표기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55, 39-54.
- 변상숙·이경규 2014, “世界國畫의 외국지명 표기에 대한 고찰” *일본근대학연구*, 46, 25-40.
- 서명일 2014, “육영공원의 교과서와 근대 지식의 전파” *한국사학보*, 56, 181-213.
- 서명일 2017, “서유견문 19~20편의 전거와 유길준의 번역” *한국사학보*, 68, 93-128.
- 서태열 2013, “개화기 학부발간 지리서적의 출판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분석” *사회과교육*, 52(1), 53-69.
- 서태열 2017, “알레니의 세계지리서 「직방외기(職方外紀)」의 지리 지식의 구성 및 기술” *한국지리학회지*, 6(3), 305-318.
- 서태열 2018,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에 기술된 세계지리 내용의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7(3), 319-336.
- 서태열 2019,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에 수록된 세계지리 내용에 대한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8(3), 377-397.
- 안중화 1908, 「초등만국지리대요(初等萬國地理大要)」, 서울: 휘문관.
- 유길준 허경진 역 2004, 「서유견문」, 서울: 서해문집.
- 유동준 1993, 「유길준전」, 서울: 일조각.
- 윤소영 “근대 일본 관찬 地誌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363-407.
- 이광린 1979, “兪吉濬의 開化思想 - 「西遊見聞」을 중심으로” *韓國開化思想研究*, 서울: 일조각, 45-92.
- 이영석 2000,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국민 정체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창간호, 125-146.
- 이영석 2014, 「지식인과 사회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역사」, 서울: 아카넷.
- 이예안 2018, “유길준 세계대세론의 근대적 개념 이해와 개항기 조선 우치다 마사오 여지지략과의 비교를 단서로” *한국학연구*, 64, 139-168.
- 이원순 1991, “朝鮮實學知識人の 漢譯西學地理書 이해”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서울: 민음사, 11-40.
- 이한섭 1999, “西遊見聞에 나타난 外國地名 및 人名의 漢字表記에 대하여 -日本式 表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1, 185-201.
- 이행훈 2019, “1920년대 문명-문화 개념의 교차” *개념과 소통*, 23, 105-140.
- 임종원 2001,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연구 -문명사상(文明思想)」, 서울: 제이앤씨.
- 임종원 2011, 「후쿠자와 유키치 새로운 문명의 논리」, 서울: 제이앤씨.
- 장보용 1970, “개화기의 지리교육” *지리학*, 5, 41-58.
- 장인성 2017, 「서유견문」, 서울: 아카넷.
- 장인성 2019, “유길준의 문명사회 구상과 스코틀랜드 계몽사상 -유길준 후쿠자와 유키치, 존 힐 버튼의 사상연쇄” *개념과 소통*, 23, 189-235.
- 전민호 2012, “개화기 학교교육개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홍석 2010, “동서 ‘문화·문명’의 개념과 그 전개 -현대 문명 담론의 개념적 이해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3, 393-430.
- 정광희 1998,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학문론에 대한 일고찰” *교육과학연구*, 28, 93-112.
- 정영숙 2000, “開化期 資料에 나타난 外國地名의 漢字表記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용화 2006, “1920년대 초 계몽 담론의 특성: 문명, 문화, 개인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33, 173-198.
- 최덕수 2015, “해방 후 유길준 연구의 성과와 과제” 최덕수·이토 슌스케·박한민·김형근·유바다·양진아·김윤화,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13-39.
- 최덕수·이토 슌스케·박한민·김형근·유바다·양진아·김윤화 2015,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학부(學部), 1902, 「中等萬國地誌 一卷」, 서울: 학부.
- 한철호 2015, “메이지시기 일본 지리교과서의 대한(조선)해협 명칭 변화와 그 의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0, 203-242.
- 허동현 2002, “1880년대 개화파 인사들의 사회진화론 수용 양태 비교 연구 -유길준과 윤치호를 중심으로-” *사총*,

- 55, 169-193.
- 허동현, 2011, “유길준의 서양문명 인식론: 사회진화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편, 「한국과 일본의 서양문명 수용: 1910년 그 이전 100년」, 서울: 경인문화사, 159-179.
- 허동현, 2017, “유길준의 해외체험(1881~1885)과 「중립론」(1885)에 보이는 열강 인식” 한국사학보, 68, 35-65.
- 허수, 2013, “세계대세론” 한림과학원 편, 「동아시아 개념연구 기초문헌해제」, 서울: 선인, 104-110.
- 内田正雄 編訳, 1870-1877, 「輿地誌略」, 東京: 大學南校
- 木全清博, 2006, “地理教科書” 滋賀大学附属図書館 編, 「近代日本Uの教科書のあゆみ -明治期から現代まで」, 彦根: サンライズ出版, 50-58.
- 文部省 翻刻, 1879, 「地理論略」, 東京: 文部省.
- 福澤諭吉, 1865, “唐人往來” 『福澤全集(第一卷)』, 東京: 時事新報社, 16-33.
- 福澤諭吉, 1866, 「西洋事情」,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會.
- 福澤諭吉, 1872, 「學問のすすめ」, 東京: 慶應義塾出版局刊(남상영·사사기와 고이치 역, 2003, 「학문의 권장」, 서울: 소화).
- 福澤諭吉, 1875, 「文明論之概略」, 東京: 福澤諭吉蔵版
- 福澤諭吉 訳, 1869a, 「莊中万国一覽」, 東京: 福澤蔵版
- 福澤諭吉 訳, 1869b, 「(頭書大全)世界國盡」, 東京: 慶應義塾
- 中川浩一, 1978, 「近代地理教育の原流」, 東京: 古今書院
- 増野恵子, 2006, “見える民族, 見えない民族 -「輿地誌略」の世界観-” 神奈川大學 21世紀 COEプログラム編 第1回 国際シンポジウム プレシンポジウム, 「版画と写真 -19世紀後半出来事とイメージの創出-」, 神奈川: 神奈川大學, 37-59.
- 川村博忠, 2003, “明治初期の文明開化 と地理教育” 総合人間科學, 3, 9-24.
- Becker, C.L., 1963, *The Heavenly City of the Eighteenth-century Philosopher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Buckle, H.T., 2011, *History of Civilization in England (185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ton, J. H. (William and Robert Chambers ed.), 1852,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for Private Instruction*, Edinburgh: Thoemmes Press.
- Calhoun, D.H., 1984, Eyes for the Jacksonian world: William C. Woodbridge and Emma Willard,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4(1), 1-26.
- Chambers, W., Chambers, R., and Mizuta, H., 1852,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for Private Instruction*, Edinburgh: Thoemmes Press.
- Chen, J.G., 2008, Providence and progress: The religious dimension in Ferguson's discussion of civil society, in Heath, E. and Merolle, V., eds., *Adam Ferguson: History, Progress and Human Nature*, New York: Routledge, 171-186.
- Cornell, S.S., 1867, *Cornell's High School Geography*, New York: D. Appleton & Co.
- Craig, A.M., 1984, John Hill Burton and Fukuzawa Yukichi, *Kindai Nihon Kenkyu*, 1, 218-238.
- Craig, A.M., 2009,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The Early Thought of Fukuzawa Yukichi*,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Darnton, R., 1979, *The Business of Enlighte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lias, N., 1969, *Über den Prozeß der Zivilisation: Soziogenetische und psychogene-tische Untersuchungen*, Frankfurt aM: Suhrkamp(박미애 역, 1996, 「문명화 과정 I」, 서울: 한길사).
- Ferguson, A., 1966, *An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 1767*,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Forbes, D., 1966, Introduction, in Ferguson, A., 1966, *An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 1767*,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xii-xli.
- Goodrich, S.G., 1867, *Peter Parley's Universal History, on the Basis of Geography*, Boston: American Stationers' Company.
- Guizot, F., 1896, *General History of Civilization in Europe (1828)*, New York: D Appleton and Co.
- Heffernan, M., 1994, On geography and progress: Turgot's plan d'un ouvrage sur la géographie politique (1751) and the origins of modern progressive thought, *Political Geography*, 13(4), 328-343.
- Heffernan, M., 1999, Historical geographies of the future: Three perspectives from France, 1750-1825, in Livingstone, D.N. and Withers, C.W.J., eds., *Geography and Enlighten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25-164.
- Hill, L., 1996, Anticipation of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social thought in the work of Adam Ferguson,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 Archives*

- Européennes de Sociologie*, 37(1), 203-228.
- Höfpl, H.M., 1978, From savage to Scotsman: Conjectural history in the Scottish enlightenment, *Journal of British Studies*, 17(2), 19-40.
- Howe, D.W., 1989, Why the Scottish enlightenment was useful to the framers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1(3), 572-587.
- Malte-Brun, M., 1824, *Universal Geography or A Description of All the Parts of the World, on A New Plan*, Boston: Wells and Lilly.
- Manuel, F.E., 1965, *Shapes of Philosophical History*, London: Allen and Unwin.
- Mayhew, R.J., 2001, The effacement of early modern geography (c.1600-1850): A historiographical essa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3), 383-401.
- Meek, R., 1976, *Social Science and the Ignoble Savag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tchell, S.A., 1865, *Mitchell's New School Geography: A System of Modern Geography, Physical, Political and Descriptive*, 1st edition, Philadelphia: J. H. Butler & Co.
- Mitchell, S.A., 1868, *Mitchell's New School Geography: A System of Modern Geography*, 2nd edition, Philadelphia: J. H. Butler & Co.
- Morse, J., 1801, *Elements of Geography*, Boston: I. Thomas & ET Andrews.
- Pagden, A., 1988, The 'defence of civilization' in eighteenth-century social theory,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1), 33-45.
- Patton, J.C., 1999, The American school atlas: 1784-1900, *Cartographic Perspectives*, 33, 4-32.
- Robertson, J., 2005, *The Case for the Enlightenment: Scotland and Naples 1680-176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neider, H.W., 1947, *History of American Philosoph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orr, D.B., 2018, Savagery, civilization, and property: Theories of societal evolution and commons theory,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19(2), 507-531.
- Schulten, S., 2001,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in America, 1880-195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orrenson, R., 1996, Toward a history of the Royal Society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Royal Society Journal of the History of Science*, 50(1), 29-46.
- Warntz, W., 1964, *Geography Now and Then*,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 Withers, C.W.J., 2006, Eighteenth-century geography: Texts, practices, sit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6), 711-729.
- Withers, C.W.J., 2007, *Placing the Enlightenment: Thinking Geographically about the Age of Rea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thers, C.W.J. and Livingstone, D.N., 1999, Introduction: On geography and enlightenment, in Livingstone, D.N. and Withers, C.W.J., eds., *Geography and Enlighten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31.
- Wolloch, N., 2011, The civilizing process, nature, and stadial theory, *Eighteenth-Century Studies*, 44(2), 245-259.
- Woodbridge, W.C., 1821, *Rudiments of Geography*, Hartford: Oliver D. Cooke & Co.
- Woodbridge, W.C., 1824, *A System of Universal Geography, on the Principles of Comparison and Classification*, Hartford: Oliver D. Cooke & Co.
- Worcester, J.E., 1819, *Element of Geography, Ancient and modern*, Boston: Timothy Swan.
- 독립신문, 1899년 2월 23일자, “제38호”
- 교신 : 양병일, 4750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 교육대 사회교육과(이메일: biyang@bnue.ac.kr)
- Correspondence : Byung-il Yang, 47503, 24 Gyodae-ro, Yeonje-gu, Busan, Korea,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biyang@bnue.ac.kr)
- 투고접수일: 2020년 11월 26일
심사완료일: 2020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1일